3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작법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아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위해 서비스는 계속
빅맨평생통장
• 이자가 오르면 오른금리로 내일해는 약정금리로!
• 교육자금 주택자금 경조사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원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0월 2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나는 오직 나의 허물만 보고
남의 허물은 보지 않는다.
〈법보단경〉

법회 안내

원각사 (02)742-0085
발원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인등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신행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가족법회 매월 넷째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광주 민덕사 (062)652-4920
연등법회 매월1~3일(음)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칠성법회 매월7일(음)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7시

강릉 관음사 (0391)43-2985
거사법회 매월 셋째 일 오후5시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화·목 오후7시
대학생법회 매주 수 오후7시
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진주 월경사 (0591)53-6411
신도법회 매월 3일 오전11시
합창단법회 매월15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월 셋째 토 오후8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인천 무량사 (032)575-3882
가족법회 매월 셋째 일 오후5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고양 장안사(0344)63-1954
가족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1시
인등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장안법회 매월15일(음) 오전11시

대구 관음사(053)421-3700
불일법회 매월 9일 오전10시
바보회법회 매월 15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1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古都 지키자" 전국확산

고속철 경주통과 백지화 추진위 18일발족…102단체 연대

경부고속철도의 경주도심통과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교계와 문화·학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 강행방침과 관련, 조계 태고 천태 진각 등 4개 종단 및 산하단체들과 문화·학계등 1백2개 단체가 연대해 도심통과 노선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한국불교재가회의(상임의장 서돈각)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한상범) 등 85개 불교단체와 한국고고학회(회장 김병모)등 17개 문화·학술단체들은 지난 18일 불교방송국 3층 법당에서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대회를 열고 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켰다.

〈관련인터뷰 4면〉

이날 대회에서 추진위원장에 이기영 한국불교재가회의 이사장, 운동본부장에 윤청광 맑고향기롭게운동본부장이 선출됐으며 고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등 4개종단 총무원장, 원불교 조정근 교정원장, 임창순 문화재위원장, 진홍섭 전 이화여대교수 등 12명이 위촉됐다.

추진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주는 한국인,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닌 세계인의 자랑이요 후세에 물려줄 귀중한 유산"이라며 "정부가 고도경주 도심에 고속철도를 놓는 것은 문화에 대한 권견에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추진위는 또 △기존의 경주통과노선을 즉시 백지화하고 경주도심과 남산에서 15Km 외곽으로 떨어진 새로운 노선과 역사를 설계할 것 △고도보존법, 문화시특별법을 제정할 것 △경주의 선도산 성지와 남산 성보 훼손 등 법난의 만행을 즉각 중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발대식과 동시에 시작된 1백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겨레의 영, 세계의 자랑 경주남산을 지킵시다'라는 표어의 스티커 보급운동, 전국 순회강연도 갖는다.

한편 경주 경실련은 오는 26일 경주에서 공청회를 열고 기존 경주노선과 건천~화천으로 우회하는 제3의 노선을 관계단체, 시민과 함께 답사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 '부다피아'는 모뎀번호 732-1520~4번으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은 16일 시연회 모습.

전자 게시판 '부다피아' 개통

16~21일 시연 온라인 설법방 CD롬 제작 등 소개

교계 언론사로서는 최초로 독자적인 전산정보망을 구축하고 지난 15일 개통한 현대불교신문(이하 본사) 전자게시판 '부다피아'의 시연회가 지난 16~21일까지 본사3층 책방 여시아문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연회에는 현대불교신문기사를 주제별 호수별로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신문서비스와 주문형비디오 방식으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불교자료를 CD롬타이틀로 제작하여 영구보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다피아를 통해 서로 공유할수 있는 CD롬 타이틀 제작사업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시연회를 통해 본사는 연말까지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해 부다피아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시범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부다피아는 '모뎀번호 732-1520~4번'으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가입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보다 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만해스님 시집 '님의침묵' 판본전시 20일~11월3일 책방 여시아문



◇ 월하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늘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통도사 정변전=고영배 기자〉

월하종정 친견법회 '성황'

본지 창간 1돌기획…전국서 250명 동참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은 지난 14일 오후 2시 법문을 듣고자 전국에서 모인 2백 50여 사부대중에게 "불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부처님께서 늘상 하신 가르침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행동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기획한 '조계종 4대 총림 방장스님 친견법회'의 첫 행사로 열린 이날 법회는 단풍이 누릇불긋 막 물들어가는 통도사 경내 종정스님이 주석하는 정변전 앞마당을 꽉 메운 가운데 마련됐다.

기획국장 시명스님 교무국장 재원스님이 배석한 이자리에서 월하스님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말은 쉬운 것같아도 행동은 참으로 어려운데, 이 한 마디에 일체 진리가 들어있다"고 설했다.

이날 동참자들은 한결같이 "종정스님을 친견하는 것만도 복인데, 귀한 법문까지 설해주셔서 환희심이 난다"며 기뻐했다.

4대 총림 방장스님 친견법회 일정

△ 2차 (10월 28일 토요일) : 해인총림 혜암 방장
△ 3차 (11월 4일 토요일) : 덕숭총림 원담 방장
△ 4차 (11월 18일 토요일) : 조계총림 송천 방장
동참방법 : 제일은행 계좌 131-10-000570 (예금주 : 수미산 여행사) 문 의 : 현대불교 722-4162~3

"종토세 선거에 이용말라"

월하종정 본지 인터뷰 "총선이전 시행돼야"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은 지난 14일 통도사 정변전에서 본지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불교계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통 사찰의 종토세(綜土稅)가 즉각 면제 되어야 하고, 정치선거용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늦어도 내년 총선 이전에는 반드시 면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계의 잇따른 종교계 인사들의 접촉을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추측과 함께 사찰 종토세 면제의 사안이 자칫 불교계에 대한 선거 선심용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시각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풀이된다.

월하스님은 "사찰의 종토세 면제를 더이상 당리당략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단언하며 오히려 지난 대선때 대통령이 직접 공약한 사항인 만큼 담연히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사찰 소유의 농지에 대한 토지 실명제에서 사찰명의의 등기를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삼보정재를 호지한다는 입님으로 전종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야한다"고 당부했다.

목어

감사 드립니다

옛날에 한 앵무새가 잠시 다른 산에 날아가 머문 적이 있었다. 그 산에 사는 새들과 짐승들은 앵무새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사랑했다. 얼마후 앵무새는 자기가 살던 산으로 돌아왔다. 몇달이 지나 그 산에 불이 났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본 앵무새는 날개에 물을 묻혀 공중으로 날아올라 날개털에 묻은 물로 그 산불을 끄려고 수없이 산을 왕래했다. 이를 본 천신이 말했다.

"한심하구나, 앵무새야. 그 큰 산의 불을 어떻게 두 날개에 묻은 물로 끌 수 있다는 것이냐"

"저도 불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천신은 감동하여 곧 비를 내려 불을 꺼주었다. (구잡비유경)의 이 이야기는 감사와 보은을 가르치고 있다.

창간 1주년을 맞은 '현대불교'는 은혜를 아는 앵무새의 마음으로 애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날개에 묻은 물로 불을 끄려했던 앵무새의 그-지성을 본받아 하해와 같은 부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지면에 풀어 내 오탁악세에 연꽃을 피울 것을 발원한다.

'현대불교'가 아무리 의욕을 갖고 신문을 만들어도 읽고 성원해주는 독자가 없었다면 1년만에 이처럼 기반을 다질 수 있었을까.

'현대불교'에 대한 독자의 사랑은 법담을 세우고 법종을 주조하는 그 이상의 불사이며 법공양이다. 때문에 독자제현께 거듭 감사드리며, 필자와 광고주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여러분에게도 공덕을 돌린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앎은 大德의 근본이며 선업을 여는 첫문'이라고 하셨다.

'현대불교'는 그 말씀을 지면속에 되새김하면서 더 좋은 신문이 될 것을 한번 더 다짐한다.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삼성화재만이 드릴 수 있는 新서비스 – ①

"이거, 어쩌나?"

몸은 홍콩인데, 짐은 런던!
그런데, 영어는 Thank you가 고작이니…

휴식 –
3시간의 비행끝에 홍콩에 도착한 김 대리 –
입국 수속도 마쳤고 이제 짐만 찾으면
휴가가 시작되려는 순간.
앗!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람? 기다려도 기다려도
짐은 나오질 않고.
게다가 속이 푹 익히고 머리도 핑 도는 게 급체할 은데,
이 낯선 공항에서 손가락을 딸 수도 없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짐은 어떻게 찾고
병원은 어떻게 가나요? 누구 도와 줄 사람 없나요?…"



삼성화재 우리말 도움서비스 –
이제,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께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자께만 제공해 오던
삼성화재 '우리말 도움서비스' –
6월 1일부터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께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세계적인 긴급서비스 전문회사인 AEA社와
제휴하여 의료안내, 여행안내 서비스에서
사고처리 안내까지 –
고객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안내서비스 : 전문의 안내, 의료시설안내, 의료인과의 전화 의료상담안내, 치료알선, 국내가족과의 긴급연락
여행안내서비스 : 여권 재발급 안내, 분실물 회수알선, 출입국비자안내
사고처리안내서비스 : 보상을 위한 현지 구비서류안내, 보상절차 안내

삼성화재 '우리말 도움서비스' –
고객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좋은 보험회사
삼성화재만의 新서비스입니다.

■ 우리말 도움서비스 이용법
개인연금보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발급되는 카드의 전화번호를 돌리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전화 : 758-7334~6

이웃에 안심을 생활에 큰 힘을
SAMSUNG 삼성화재

사 설

'스님 복지'의 다각적인 검토

그동안 산발적으로 논의되어온 스님들의 노후복지문제가 제도화되고 실천단계에 들어간 종단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진각종 태고종 천태종 등이 최근에 종단차원의 승려노후복지정책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올바른 제도로 정착되고 불교계의 전체여론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에서도 개혁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천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종헌 116조에 '승려노후복지원'의 설치근거를 두고 〈승려노후복지원 설치령〉까지 제정 공포하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한다. 조계종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실천하길 기대한다.

그러면 왜 우리는 새삼 스님들의 노후복지문제를 거론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우선 다음과 같은 역사 사회적 배경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자본주의사회이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역경 포교 도제양성이라는 한국불교의 3대불사를 이루어 낼 수 없다. 그런데 부처님은 '무소유'를 출가정신으로 가르치셨다. 이 정신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실천하려면 당연히 스님들의 복지시설과 복지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지나쳐 버릴 수 없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시민사회가 올바르게 정착되지 못하고 이른바 '개발독재'에 의한 기형적인 자본주의가 형성되었다. 자본이 일부 재벌에 독점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심하여 지역 계층간의 갈등 대립이 심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80년대부터 정착시켜 오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모습이 불교계에도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종단 내부에서도 자본주의의 모순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재정적인 문제때문에 종단분규나 종권다툼이 일어날 소지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구도자의 출가정신으로 부처님의 사상을 전파하고, 청정하게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과 제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불교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불교계는 종단내부의 복지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사부대중의 새로운 인식과 함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를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종단이나 범불교적으로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스님들의 각종 질병 부상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보험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

둘째, 국민연금복지법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단차원의 제도확립과 '불교성직자공제회(가칭)' 등의 설립도 연구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스님들이 역경 포교 도제양성 등의 불사에 전념하는 것도 산업재해 보험법상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있어서 보험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결국 이러한 복지시설 복지사업의 성공여부는 재정적인 뒷받침에 달려있다. 재정이 튼튼한 사찰에서는 출연금을 많이 내는등 합리적인 기금운영을 통하여 모든 스님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그래서 출가정신인 '무소유'로 깨달음의 사회적 실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대만평

박구원



"걱정 없소"

열린마당

뇌사 합법화

현재는 심장·폐 및 뇌기능의 불가역적 정지로 심장박동정지 호흡정지 및 동공산대(瞳孔散大)와 광반사 소실을 확인하면 사망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뇌사상태에서는 뇌간이상, 뇌기능의 정지된 후에도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심장은 짧은 기간동안 박동을 유지할 수 있어,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해야하느냐 아니냐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뇌사를 인정하고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첨예한 현안이던 뇌사가 합법화되고 따라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장기이식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뇌사합법화에 대한 찬반 의견과 법안 추진 상황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영원히 사는 큰 보시' 악용우려 불식해야

찬성—법 장 〈생명공양실천본부장〉



뇌사상태라는 것은 생명이 끊어졌다고도 안 끊어졌다고도 단정지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뇌사상태는 본인에게는 물론 주위에도 고통이 따르고 의학적으로 사실상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경이다.

이런 점에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서로간의 고통을 없애고, 장기기증으로써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법개정은 꼭 필요하나 악용될 소지를 철저히 배제하는 세심한 조건이 병행돼야 한다. 법령으로 못박았을 경우 오진이나 오판으로 인해 자칫 아까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우려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관단과정에서 적어도 3인 이상의 전문의의 인정을 받아야만이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뇌사를 인정, 장기를 기증함으로 고통에 빠져 있는 또다른 산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자비의 실천이다. 장기기증자에게는 불교적 삶의 구체적 실천이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공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러한 크나큰 보시를 받아 죽어야 할 생명을 회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해 더욱 큰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살아있는 생명체"

반대—신 현 숙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불교에서는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인간 존재의 뿌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근원적 정신인 아뢰야식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있다. 따라서 뇌사를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섭리를 역행하는 것은 물론 종교윤리마저도 역행하는 것이나 다름바 없다.

극단적으로 뇌사를 인정한다는 것은 죽어가는 다른 환자의 새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직 죽지 않은 생명체를 해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기증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귀하고 훌륭한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뇌사를 인정할 경우 죽음의 정의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도덕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장기를 사고 파는등의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더우기 뇌사관정에 대한 의사의 도덕적, 과학적 관정이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질 지도 미지수다.

많지는 않지만 뇌사상태에서 다시 깨어나는 경우가 종종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것을 우연이고 기적이라고 한다해도 법으로써 우연과 기적을 규정할 수는 없는 분제다.

종교 법조 의학계 의견수렴…내년 법안상정

정부관계자 의견

의학계에서는 장기이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뇌사인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법조계는 뇌사를 법으로 규정하는 문제와 장기이식에 관한 입법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는 형편인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우리 복지부도 뇌사합법화를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뇌사를 인정하고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했음을 밝혔다.

국민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해당부처로서 장기이식문제에 관한 각종 정보를 총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담하는 '장기이식정보센터(가칭)'를 내년중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1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이달 말 종교계, 법조계, 의료계등의 관계자들을 포함한 뇌사인정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찬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서기관〉

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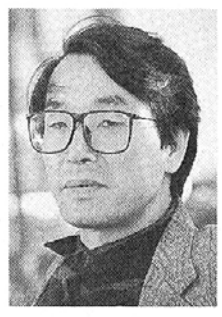
因果 모르는 日의 '끝없는 망언'

요즈음 철거 작업이 한창인 옛 조선총독부 건물 중앙 홀 천장벽에 아직도 두 폭의 벽화가 남아 있다. 이 벽화는 일제 강점기의 일본화가 와다 산조(和田三造)란 사람의 작품으로 일본의 고대 신화를 내용으로 하여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인들이 이런 내용의 벽화를 식민지배의 총본산인 총독부 건물에 장식해 놓은 것은 그들의 고대 신화로써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였다. 최근 일본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한일합방 관련 망언을 들으면서 이 벽화의 내용을 새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고대 신화에 의하면 신공황후(神功皇后)는 중애천황(仲哀天皇)의 부인인데, 이 황후가 옛날에 삼한(三韓)을 정벌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 신화는 후대에 조작된 역사 왜곡의 표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그 뒤 사실처럼 꾸며졌고, 일본인의 대한(對韓) 감정을 촉발시켜 임진왜란 등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이 되었다.

신공황후 신화의 내용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또다시 대두되었다. 그들은 이것을 황당한 침략 논리로 발전시켰다. 요컨대 조선은 신공황후 때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아 왔기 때문에 한국은 본시 일본의 땅이었다는 것이다. 한일합방은 잃었던 자기네 땅을 되찾은 것이고, 조선인은 본래의 주인을 찾아 돌아오는 것이라는 실로 해괴한 논리를 전개했던 것이다.



허 균
〈정신문화연구원 선임편수원〉

총독부 벽화의 역사왜곡

신화의 내용 조작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역사 왜곡의 버릇은 이골이 나 있다.

일본 식민 사학자들은 고구려 광개토대왕 비문을 훼손하여 한국 고대사를 조작하려 했던가 하면, 백제 왕이 왜왕(倭王)에게 하사했다는 칠지도(七支刀)를 거꾸로 왜왕이 백제 왕에게 준 것처럼 꾸미기까지 하였다.

한술 더 떠서 이른바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을 조작하여 왜(倭)가 4세기 중엽에 가야지역을 정벌하여 임나일본부라는 통치기관을 설치하고 2백여년간 한반도 남부를 경영하였다는 학설을 만들어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또 다시 일본은 조선 침략의 저의를 호도하고 정당화하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무라야마(村山富市) 일본총리의 한일합방은 적법이라는 망언이 있는가 싶더니 자민당내에 일본의 조선침략을 왜곡 미화하는 책자가 배포되었다고 한다. 그 책자에서 한일합방은 동양 평화와 일본의 자위를 위한 것이었고 이런 화(禍)는 조선인이 자초했으며 근대이후 한국의 발전에는 일본의 공헌이 컸음을 기술하고 있다고 우리 신문들이 전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의 가장 적합한 사례임에 틀림없다. 그들의 이같은 망언의 배경이 되었던 근거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작된 광개토대왕 비문이나 칠지도 그리고 이 신공황후 신화의 벽화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문화주체성 확립 급선무

얼마있지 않으면 일본 식민통치의 잔재인 옛 조선총독부 건물은 우리의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제가 한반도 침략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 삼았던 신공황후 전설이 담긴 벽화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건물 하나를 헐어내고, 또 벽화가 사라진다 해도 그것만으로 일본인들의 간사한 입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인의 반복되는 망언과 우리의 분노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일본 스스로가 자신들의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겉으로는 사죄하면서도 자신들의 지난 과거를 침략 아닌 광화로 미화하고 책임 소재를 피해당사자에게 돌리는 이중성을 버려야 함은 마땅하다.

한편으로 우리들은 그들의 망언을 영원히 잠재우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과감히 청산하고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하는 일에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한 때 들끓다가 곧 시들해지는 모습을 일본인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가슴을 찔끔하게 만드는 뼈아픈 말이 일본으로부터 들리고 있다. 한국의 과거사 관련 망언규탄 캠페인은 보름 정도의 시일만 지나면 끝난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잘 알고 있다는 어느 일본 기자 말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해 볼 만한 말이다.

해인승가대학 동문회 총회 소집 공고

도제 양성을 위해 해인사 법보전문강원으로 설립돼 오늘의 해인승가대학으로 성장하기까지 올해로 어언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기라성같은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배출된 동문들도 **640여명**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올해는 이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욱 뜻깊은 동문회 총회를 갖고자 합니다.

경향 각지 각자의 수행처소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계실 해인승가대학 동문들께서는 꼭 동참하시어 귀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8대 동문회에서는 개교 40주년을 기념하여 동문지 **<구광(九光)>**을 창간하고, 일차로 총회 회의장에서 동문님들께 배포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회 동문지를 위해 옥고를 집필해주신 동문님들과 편집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문회 총회 안내

■ **일 시 :** 불기 2539년 10월 30일 (월요일) 오후 1시
■ **장 소 :** 해인사 (전화 : 0599-31-1001)
■ **상임위원회 :** 불기 2539년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기 2539년(1995) 10월

해인승가대학 동문회 회장 한 보 광 합장

알 림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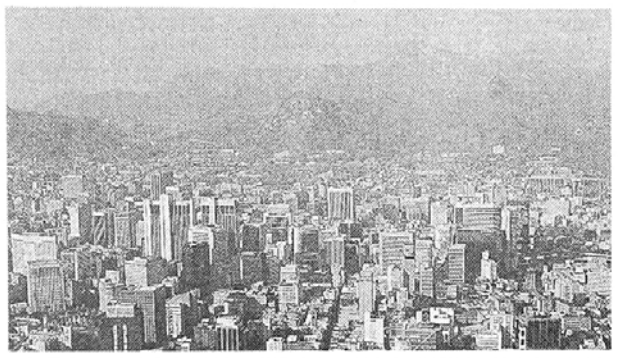
맑은 하늘 풍성한 가을에 동학사 승가대학에서는 동학 총동문회 제20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정진중 바쁘시더라도 선후배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탁마하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때 : **불기 2539년 11월 2일 (음 9월 10일)**
■ 곳 : **계룡산 동학사 오후 4시** ☎ **(042) 825-2570**

* 회의 다음날 봉암사 성지순례를 함께 하겠습니다.
개별통지는 생략하기로 하였사오니 각기 대표스님들께서 연락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학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회장 혜 등 합장

생명체 지탱시키는 生氣 역할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바람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사진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서울의 하늘〉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㉙

바 람

체내바람 불순하면 질병·생장장애 초래

바람은 옛부터 생명체의 가장 직접적인 근원으로 여겨졌다. 인도에서는 유명한 우파니샤드의 범아일여(梵我一如)의 사상-객관적 초월과 주관적 초월이 같다-의 중심에는 진아(眞我)가 놓여 있는데 그 본래적 의미는 바람을 호흡하는 존재 즉 아트만을 지시한다.

이렇듯 바람은 생명체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가 이 바람을 호흡하지 않고도 땅, 물, 불과는 달리 단 한 순간도 생명체를 보존할 수 없다.

자연의 바람은 이렇듯 생명체를 지탱하는 본질적인 요소로 생기(生氣)라고 불리워 왔다. 부처님은 초기경전에서 자연의 바람을 사방풍(四方風), 유진풍(有塵風), 무진풍(無塵風), 소풍(小風), 대풍(大風)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생명의 바람이 우리의 육신에 들어오면 작용하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 상향풍(上向風), 하향풍(下向風), 하복주풍(下腹住風), 지지수류풍(肢肢隨流風), 출식풍(出息風), 입식풍(入息風)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로 보아도 바람이 우리의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직접적이고도 광범위한 가를 알 수 있다. 자연의 바람이 청정하다 하더라도 우리 육신의 상향풍에 이상이 생기면 상기되거나 정신병이 생기기 쉽다. 하향풍에 이상이 생기면 배설 기능이 손상되기 쉽고, 하복주풍에 이상이 생기면 소화기능에 장애받기 쉽고, 지지수류풍에 이상이 있으면 류마티스나 관절염을 앓기 쉽고, 출식풍과 입식풍에 이상이 생기면 육체적 생명에 이상이 생긴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물며 자연의 바람이 각종 공해로 인해 오염되어 가는 오늘날 우리 생명체내를 종횡무진하는 위와 같은 바람인들 청정할 리 만무하다. 오늘날의 대기오염은 대기오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내의 바람의 오염을 수반한다는 것에 대대로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데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기오염이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매년 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도 다양해지고 있어 건강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심각해지고 있다.

아황산가스는 기관지염, 천식, 식물 잎의 피해, 건물·동상의 부식을 일으키고, 먼지는 시력장애, 폐질환, 금속의 부식을 일으키고, 오존은 폐기능 손상, 식물 생장점의 파괴, 고무의 균열을 유발하고, 이산화질소는 호흡기 장애, 금속의 부식, 식물생육의 장애, 갈색연무를 발생시킨다. 일산화탄소는 두통, 현기증, 구역질 및 심장질환을 일으킨다.

또한 공기중의 중금속은 조혈기능의 장애나 신경장애를 유발시키며, 탄화수소는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식물의 비정상적인 성장이나 장애를 일으킨다.

물론 이러한 바람의 오염은 무엇보다도 불의 오염, 즉 에너지오염에서 유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산업체 및 화력발전소 그리고 가정용 난방, 자동차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에서 비롯된다. 또한 이러한 대기오염은 산성비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옮아가고 또한 지구 생태계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한국불교대 교수〉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최근 들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학업성적에 반영하고, 기업체에서도 자원봉사 경력을 신입사원을 뽑는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에 대해 반갑기도 하면서도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자비심이 부족하고 반생명적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되어 씁쓸하기도 하다.

불교는 자비문중으로 불리우듯 생명있는 모든 것을 보전하고 감싸왔다. 모든 것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가르침 이전에 삶의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였다.

자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자원봉사는 자비실천의 구체적 방법이며 내용이다.

불교계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과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을 이어주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있다. 연합회에는 1천명이 넘는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금주의 주제

자원봉사 참여

이들 회원들은 자기의 처지에 따라 1개월에 하루, 아니면 몇 시간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그도 아니면 성금으로 동참하고 있다.

자비 실천하는 구체적 정진

근로·성금후원·모니터활동 등 생활화하길

지난 7월 명동 백병원 자광양로원 등 14곳에서 1백여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이 하는 일은 노인들 목욕시키는 일부터 환자돌보기 세탁 청소 등 다양하다. 좀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사람은 언론모니터 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소년소녀가장과 봉사단체에 1천2백여만원의 후원금을 보냈다.

지난 8월 국립의료원에서 3일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이승준군(홍익사대부고 2년)은 하루하루를 보시 인욕정진의 날이라 이름짓고 자원봉사에 임했다며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새삼스럽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 자원봉사 기회를 자주 가져서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했다.

아직도 자원봉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많다. 자원봉사연합회 김희진간사는 "많은 불자들이 아직도 어떻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경험이 없어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라며 "자원봉사연합회(723-6258, 6259)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준뿐 아니라 사전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에 임하는 태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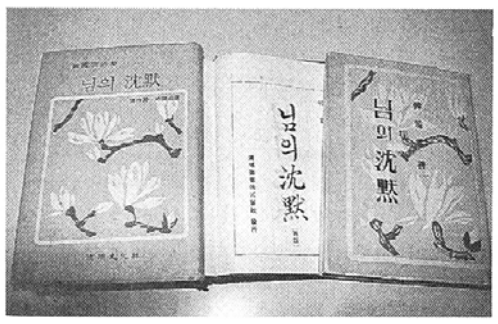
"법회장소 마련됐으면…"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복무하고 있는 군종병입니다. 하지만 법회를 볼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는데다 얼마전 마련한 작은 창고는 너무 좁아 부처님도 제대로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법회를 보겠다고 찾아오는 불자님들에게 초코파이 하나 베풀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보니 더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몇푼 안되는 제 월급으론 턱없이 부족하고, 그럴듯한 법당을 꾸며 법회는 열고 싶고…, 어찌해야 할 지 망설이다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애쓰고 있는 군불자들에게 부처님 법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많은 불자님들의 자비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1리 사서함 100-36호
제5882부대 본부포대 상병 이경호 (0365)461-0023

社 告



만해스님 '님의 침묵' 판본전

20일~11월 3일, 여시아문

현대불교신문과 책방 여시아문이 창간·개관 1년을 맞아 만해 사상 연구회(회장 전보삼)와 함께 만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판본 총 82종을 전시합니다. 1926년 초판 단행본 시집의 발간이래 현재까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은 꾸준히 발간되고 있으며 영문판도 3종이나 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과 문학 그리고 불꽃같은 민족애를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6년 초판 비롯 총 82점…영인본 판매

- 전 시 일 정:10월 20일~11월 3일
- 개 막 식:10월 20일 오후 2시
- 장 소:책방 여시아문(본사 1층)
- 기타 전시물:만해스님 영정, 만해시비 사진 액자(5점), 〈님의 침묵〉 전문
  1926년 초간본 영인본 40권 한정판매

현대불교신문사

신행수첩

◇536m 높이의 소요산은 산능선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성벽을 이루고 있는 듯하며, 경기 소금강이라 불릴만큼 경승지다.

마음의 양식 채워줄 법문

부산보현불교대 고승대법회

가을을 맞아 불자들의 정서함양과 신심고취를 위해 전국각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불자들에게 풍성한 마음의 지식을 가득 채워줄수 있다면 금년 가을은 어느 해보다 뜻깊을 것이다.

부산보현불교대학(학장 보현)은 11월17일부터 26일까지 한국불교를 대표하고 있는 21인 고승대덕스님들을 초청 대법회를 개최한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를 비롯 육바라밀, 팔정도, 심성설, 선수행 등 교리에 대한 다양한 법문이 펼쳐질 예정이다. (051)253-0681

등산대회·백일장등 행사

자재암 첫 소요산 단풍제

소요산은 경기도의 소금강으로 불릴만큼 아름다운 명산으로 대자연의 수림과 폭포수의 비경으로 유명한 곳이다.

사철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일주문, 속리교를 지나 하백운대부터 상백운대에 이르는 절경을 가로지른 등산로가 가히 일품이다.

처음 계곡을 따라 오르면 원효대사가 수도끝에 도를 얻지 못해 투신자살하려던 순간 도를 얻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원효대가 청량폭포 오른쪽에 자리잡고 있다.

여기를 지나 작은 다리를 몇개 건너면 백운암과 자재암이 옥류폭포의 신비함과 함께 마주보고 있다.

바로 이곳에서 동두천 자재암(주지 선광스님)이 동두천시와 공동으로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제1회 소요산 단풍축제'를 열고있다.

이번 축제에는 등산대회, 주부백일장, 사진전시회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소요산은 승용차로 의정부에서 동두천 시가지를 벗어나 10분정도 거리이고, 상봉터미널과 수유리, 의정부에서 직행버스가 자주 있다.

(0374)33-6296

단풍보다 더 고운 불심

신행연, 운문사 사리암 순례



불자들의 가을은 어디서 절정을 이룰까. 깊어가는 이 가을 일렁이는 불심으로 마음의 단풍을 가장 고운 빛깔로 물들여 보자.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은 오는 28일 경주 토함산 석굴암과 청도 운문사, 사리암으로 이어지는 불교문화기행길에 오른다.

완벽한 조형미와 그 심장함 속에 전해오는 석굴암 부처님의 무언의 가르침을 가슴깊이 간직한 채 청도 운문사에 도착할 때쯤이면 어느새 마음은 단풍빛보다 더 고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비구니강원으로 유명한 운문사는 대웅보전, 삼층석탑등을 비롯 많은 보물급 문화재들이 남아있어 운문사의 깊은 역사를 설명해 준다.

또한 운문사 사리암은 옛부터 전국제일의 독성기도처로 꼽히는 곳으로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영험한 도량이다. (02)587-6613

생활 속의 불교 ㊻

적자생존(適者生存)이란 망발 때문에



인체를 소우주라고 한다. 오장육부의 돌아가는 모습이 우주의 운행 원리와 비슷하고 장기마다 수십억 개의 세포가 어우러지는 모습도 지구 같은 혹성을 닮았기 때문이다.

과학이 밝혀낸 바로는 인체 내엔 수십조 개의 세포가 있으며 세포 안에 다시 독립된 생명체(미생물)가 있고 부위 부위마다 세균이 함께 산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직과 조직, 세포와 세포 간에 통신하는 기능, 유통 기능, 생산·소비 기능 등이 세상의 어떤 과학적 소산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다.

인체를 일컬어 중생의 국토라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닌 셈이다.

수많은 생명체가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어울려 돌아가는 모습은 지구 속에서, 나라 안에서 사람들끼리 뒤섞여 사는 방식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내 몸이라 해도 이름만 '내 몸'일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수십억, 수십조 개의 중생이 우글거리는 공동체 사회인 것이다.

세상도 인체도 우주도 모두가 공동체이다. 개개인이 따로 따로 사는 게 아니며 세포나 장기가 따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며 혹성들이 제각기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다. 서로 의지하며 서로 주고받는 질서 아래서 공생하고 있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한 집 식구요 한 배를 타고 있는 승객이다. 겉 모습은 비록 다르고 각각인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근본을 모를 때나 할 수 있는 생각이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불자의 서원은 이를 세상살이에 대입하면 해탈의 도를 닦아 보살행을 한다는 의미가 되지만, 이를 인체에 대입하면 상구보리-내 몸을 끌고 다니는 근본을 아는 것이고, 하화중생-그럼으로써 내 육신 속의 수십조 세포를 몽땅 제도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인체와 세상과 우주가 공생·공용·공체의 섭리 위에 존재할진대 '나 하나 잘 되면 그뿐'이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반(反)우주적, 반 인간적인 사고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일상 생활 중에 좀처럼 공생·공용·공체의 섭리를 자각하지 못한다. 아니, 그것을 자각하기는커녕 그 섭리를 '적극적으로 깨트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한 술 더 떠서 그런 삶을 유능한 삶, 보람 있는 삶으로 간주하기까지 한다. 알게 모르게 짓는 업이 수미산 같다 한들 틀린 말이라 하겠는가.

동양적 사고의 뿌리는 모든 존재하는 것끼리는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공생 관계에 두어진다. 반면 서양적 사고의 뿌리에는 소위 적자생존의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능력 있는 존재만이 살아 남는다는 것은 세상을 무한대의 싸움판으로 볼 때나 가능한 논리다. 그러나 인체 내에서 그 많은 생명체들은 적자생존의 길을 따르지 않고 상생공영의 길을 따른다. 그것이 섭리이기 때문이다. 만일 오장육부가 적자생존식으로 기능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 종잡을 수 없이 어지러운 세간사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의 관계는 적자생존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생존의 관계이다. 함께 가는 길, 함께 사는 길만이 제 길이요, 바른 길이다. 부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이다.

협찬 : 김동성·지애령 김재환·김영환

"민족문화 보존은 불자의 의무"

고속철경주통과 백지화 추진위원장 이 기 영 박사



"우리 역사와 문화의 보고(寶庫)인 경주에 일제때 철도가 가로지르더니 이제는 더 안쪽으로 요란하게, 더 높은 고가다리 위로 고속철도가 지나간다니 기가 막힙니다."

지난 19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열린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운동본부' 추진대회에서 추진위원장에 추대된 이기영박사(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은 "고속철도의 경주 도심통과를 막는 일은 부처님과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고 후손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대작불사(大作佛事)"라고 말했다.

"잘못된 문화정책에 대해 우리의 정당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야 합니다. 전통문화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어떠한 음모도 좌시해선 안될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불자 모두가 보살과 같은 자원봉사자가 되어 우리문화를 지키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할 것을 발원해야만이 '사상 최대의 법난'을 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경주와 민족문화를 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협박에 가까운 방해공작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민족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이들의 추한 모습을 안타까와 했다.

"정부는 경주 도심과 남산에서 15Km 외곽으로 떨어진 새로운 노선과 역사를 설계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도(古都)보존법' '문화시특별법' 등을 제정해 지역 문화재를 소중히 보존토록 하고, 시민들이 겪는 불이익을 보상해야 합니다."

김재경 기자



비암사 복원 및 증개축 기공식

충남 연기군 소재 비암사(주지 진우스님)는 지난 18일 비암사 복원 및 증개축 기공식을 거행했다. 국보 1점과 보물 2점 지방문화재 2점을 소장하고 있는 비암사는 기공식을 계기로 극락전,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를 신·개축한다.

이날 기공식에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 운도스님, 마곡사주지 철웅스님, 민자당 박희부의원등 5백여명이 동참했다.



백련사 삼풍희생자 영혼결혼식

서대문구 홍은동 태고종 백련사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삼풍붕괴사고로 숨진 삼풍백화점직원 이혜선·한명순씨에 대한 영혼 결혼식을 봉행했다.

그동안 무료합동결혼식을 치뤄온 설산스님은 "육신은 죽고 없지만 넋으로나마 세상 모든 원한을 풀기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이날 불의의 사고로 숨진 4쌍도 함께 결혼식을 올렸다.



티벳 사추린포체 초청 법회 성료

용인 갈마산 동도사(주지 혜성스님)는 지난 17·18일 티벳트 라마 사추린포체 초청 대법회를 성황리에 봉행했다.

17일 대법회 18일 마정수기 순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서봉스님, 연수원장 법장스님, 김학규의원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했다. 한편 사추린포체는 강화도 선원사 서울 오세암 창원 향천사를 순회하며 법회를 가진다.



대불청 민자 강삼재총장 초청간담회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지난 16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자당 강삼재 사무총장 초청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민자당 조용직·김기수의원, 대불청 정웅정 부회장, 양승찬 대의원 의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대불청은 경부고속전철의 경주통과백지화, 해인사골프장건설중지, 범어사앞 아파트건설중지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컴퓨터는 최고의 포교사"

하이텔 불동 5대 시샵
오 상 룡 교수



"현대에 있어 컴퓨터는 포교에 최고의 효과를 볼수있는 방편입니다. 사찰소식이나 불교이야기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무한정으로 펼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모든 사찰이 고유번호(ID)를 갖고 불교동호회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하이텔 불교동호회 5대 대표시샵으로 선출된 오상룡(상주 산업대)교수는 "컴퓨터 이용에 따라 포교의 성패여부가 판가름난다"고 단언한다.

오교수는 "하이텔 동호회에는 매일 5명정도의 새 가입자가 늘고 있다"며 "이들이 컴퓨터를 통해 불교를 재미있게 공부하고 신행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쏟겠다"고 말했다. 오교수는 또한 "컴퓨터의 한계가 글을 통해 만나는 것이기에 때로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가 있어 지역, 취미, 연령별로 모임을 활성화하여 자주 만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엽〉

내일을 여는 불자



"미래의 불교를 짊어질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졸고 있는 불교가 아니라 뛰는 불교가 되어야 합니다."

참신한 기획과 뜨거운 열정으로 지역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경주 신라문화원 원장 진병길씨(32).

그의 머리는 늘 보다 효과적이고 대중적인 포교를 위한 구상으로 가득 차 있다. 비록 고속전철 경주도심통과 반대문제와 맞물려 무기연기되기는 했지만 오는 11월 4일 부산 삼광사 합창단, 대구 한마음선원 합창단 등 영남지역의 우수한 합창단을 초청하여 제1회 서라벌 불교음악제를 개최키로 한 것도 그 구상들 중의 하나.

매년 봄·가을 큰스님 초청 대법회를 비롯하여 전통찻집 선다원 개원(92년), 신라문화원 설립(93년), 매월 정기선다원 유적답사, 청소년 유적답사, 신라문화원 역사탐방·유적답사, 대금·꽃꽂이·다도 등의 교양강좌 개최, 계간 '신라문화' 간행, 남산지도 보급, 우리차 보급, 대자원 고아원과 천우자애원(양로원)등 불우시설 위문, 각종 불교행사 기획, 년 2회 청소년 문화마당 등 문화, 복지, 기획, 출간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의 활동영역은 넓다.

지난 90년 동국대 총학생회 종교부장시절에는 학교상징탑(백상탑) 건립추진을 맡아 1억3백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모금했다. 그때 스님들이 붙여 준 별명이 '화주승'이지만 현 신라문화원 운영은 늘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경주 신라문화원장
진 병 길 씨

전통차 판매, 경주일원 안내, 후원회의 후원금, 회원의 회비 등을 합친 3백여만원의 한달수입으로는 직원 넷을 포함한 다섯명이 한달 신라문화원을 꾸려 나가는데 드는 비용 6백만원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

"사심을 안가지고 하던 무엇이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계속적자로 꾸려갈 생각입니다. 적절한 적자는 발전적 의미와 마음의 여유를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YMCA와 같은 역할도 성공적으로 해내기를 원하는 신라문화원은 불교문화도시로서의 경주를 가장 경주답게 해석하여 이를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윤호 기자

교 차 로

부산 KBS홀 대강당서 법문



승찬스님 (송광사 방장)은 오는 29일 오후2시 부산 KBS홀 대강당에서 대한불교 사경회 주최로 개최되는 법회에서 법문한다.

(0523)82-7094

'불교문화연구' 4집 발간



성파스님 (영축불교문화연구원장)은 최근 신라 지장대사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불교문화연구〉 제4집을 출간했다.

하와이 대원사 20돌 법회 참석



운제스님 (태고종 전 총무원장)은 하와이 대원사 창건 20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8일 출국한다.

국군 벽제 병원에 위문품



정진스님 (병상심방원 원장)은 지난 6일 국군벽제병원을 방문하고 3백여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선재어린이집 개원



정우스님 (선재어린이집 이사장)은 지난 20일 강남구로부터 위탁받은 강남최대규모의 선재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

덕유 어린이집·경로당 개소



영담스님 (덕유사회복지관 관장)은 지난 14일 덕유사회복지관 부설 룸비니 덕유어린이집과 덕유마을 경로당 개소식을 가졌다.

대학생등 68명에 장학금



정희수이사장(화엄승가장학회)은 지난 15일 인천 약사사에서 대학생·고등학생 68명에게 총 2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수학회 공로상 수상



김용운명예교수(한양대 수학과·본지 논설위원)는 지난 14일 부산대에서 열린 대한수학회 95년도 정기총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방배동 지역주민 무료진료



운월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회 회장)은 지난 16~18일 방배동 여래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한양대서 '…동양문명' 강연



김종규회장(삼성출판사)은 오는 25일 한양대 백남음악관에서 "탈 근대시대의 동양문명"을 주제로 강연한다.

게 시 판

▲정토불교 강좌=정토불교대학생회는 제15차 실천적 불교사상대강좌 '부처님 일생'을 개최한다. 10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정토포교원.

(02)379-16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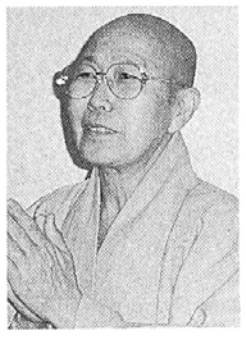
▲주부 부업인력 모집=개금사회복지관(관장 범산)은 가정부업 등에 종사할 주부인력을 모집한다. (051)893-5034

▲문학상 작품모집=월간 동쪽나라(발행인 김형균)는 제4회 문학상 작품을 모집. 응모부문은 동시, 단편·장편동화이며 자격은 등단하지 않은 신인이나 문단경력 5년 이내의 작가. 접수마감은 오는 31일까지. (02)263-1387

인 사

불교방송은 지난 16일 이광 방송위원을 편성제작국장에 보도국 이영일 종교문화부장을 보도국 부장으로 임명하고 김창영 영업국장을 조사자료부장에 겸직토록 발령했다.

사후시신 기증 신청 덕 수 스님



이 몸도 내 몸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생명공양실천본부에 사후시신기증을 신청한 수덕사 견성암의 비구니 덕수 스님.

세수 76세의 나이에도 그 누구보다도 검소한 수행자의 삶을 살아온 스님은 지난해 7월 생명공양실천본부에 사후 시신기증을 신청했다.

"내몸도 내것아님을 실천했을 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시주님 신세를 어떻게 다 갚을까 고민하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서 장기기증에 대한 토론을 보고 자응스님에게 물었더니 생명공양실천본부를 알려줘 기증을 하게됐습니다"라고 스님은 밝혔다. 덕수스님의 기증이후 견성암의 수현, 법상스님등 10여명의 비구니 스님들도 생명공양실천본부에 사후시신기증을 신청하기도 했다.

스님은 54년 정화운동 당시에도 청담스님등과 함께 단식기도를 하는 등 수행자로서의 올곧은 한 길을 걸어왔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부처님 뜻이고 생명의 인연법입니다. 내가 기증한 것도 모두가 그 인연법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불자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요. 불자들이 스스로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다만 우리 수행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은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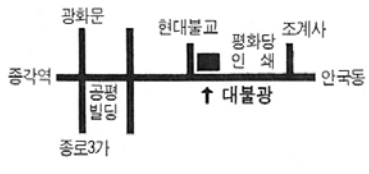
신심 없이 조성된 불구는 한낱 장식물에 불과하다



조용한 법당에 부처님의 고즈넉한 자비, 그 미소를 함뿍 담아 가지는 선남자여.
바람벽에 채색된 불화에서 믿음의 새싹이 돋아나는 보살들이여.
일체의 장엄구 불구에서 수천년의 신심을 함초롬히 꽃피우는 불자들이여.
이 모든 존상물, 탱화, 불구, 석물이 어찌 신불의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기저기 대량으로 제작되는 존상물의 홍수에서 우리의 믿음을 손상하게 된 적이 얼마입니까. 부처님은 거룩하고, 진리는 광명하니 '더 없이 높으신 생명의 자랑입니다.
신심이 없이 조성된 불구는 한갓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존상은 흙, 나무, 돌, 쇠, 종이로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그 조성에는 장인의 신심과 예술적 깊이가 함께 깃들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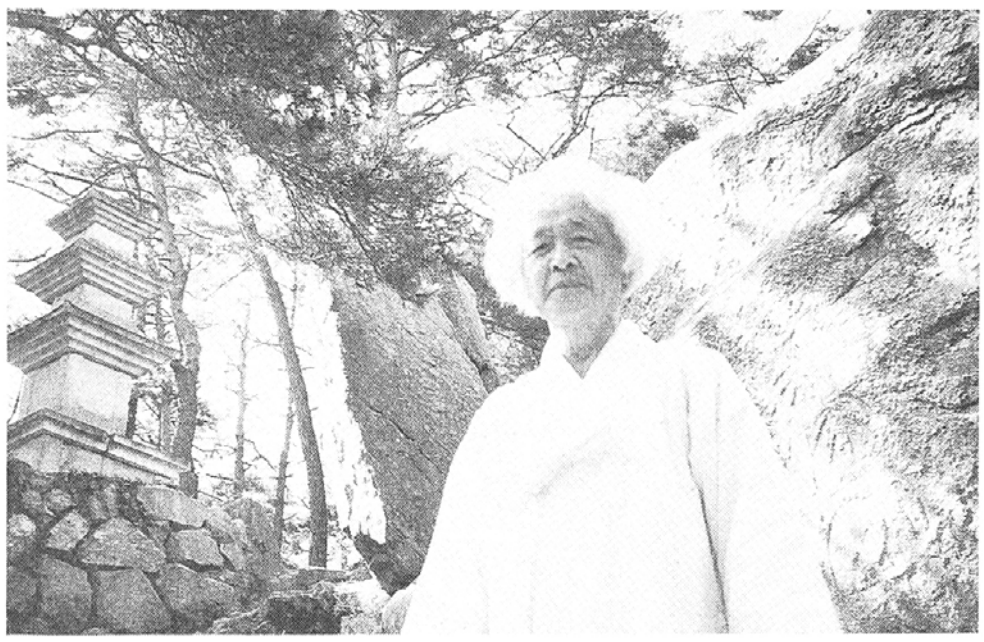
大佛光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 (02) 738-1117
팩스 : (02) 738-1118



이제 여기 여러 장인들이 열어 놓은 "대불광"에 모든 불자님이 친히 왕림하시어 존상의 신앙성을 우러러 보고, 또한 장인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무량한 공덕이 함께 할 장엄불구를 조성케 하려 하오니 "대불광"으로 나오셔서 일가견을 이룬 장인불자들과 상면하시기 바랍니다.
"대불광"은 부처님을 열망적으로 신앙하는 순수장인들의 공동 광장이며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향사루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관장 허 길 용 합장



'우리의 美' 찾기 50년…"남산은 고향"

산문밖의 禪

경주 향토사학자 윤경렬 翁

석굴암에 올라갈 때는 김대성이 되고, 첨성대를 바라볼 때는 선덕여왕이 되는 사람. 삼화령 아기부처님을 볼 때는 화랑의 눈빛을 닮는 사람. 그가 바로 '영원한 신라인'으로 불리는 윤경렬옹(80)이다.

하얀 두루마기에 신선처럼 눈부신 백발의 윤옹은 누구든지 경주 남산에 가자고 하면 젊은이 못지않은 힘찬 발걸음으로 흥에 겨워 앞장을 선다.

부처님 세상서 한평생

"신라 사람이 이룬 것은 자그마한 것이라도 결코 소홀한 것이 없어. 시작도 부처님이었고 마무리도 부처님이었으니. 신라인들은 오늘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부처님의 세계속에서 살았지. 신라인들이 모신 부처님은 먼 곳에 동떨어져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친근한 부처님이야."

신라인들은 바위와 숲 자체를 부처님의 몸처럼 여기고 자연을 최대한 살려 조각하였기 때문에 경주 남산이라는 훌륭한 자연예술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윤경렬옹의 생각이다. 그에게 경주 남산은 영원한 고향이다. 마치 안방처럼 느낀다. 함께 찾아간 남산 탑골 마애불상 앞에서 노옹은 남산의 한 부분을 지긋이 응시했다. 그 모습은 삼매에 든 선승의 觀과도 같았다. 시공을 넘나드는 의식세계를 통해 역사의 현장으로 몰입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마치 불상이 새겨지던 시절의 얘기와 긴 세월 겪어온 풍상에 대해 心談이라도 나누고 있는 듯….

머리가 없는 불상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깨진 돌조각 하나, 희미해져 가는 마애불의 모습 하나하나가 오래전부터의 도반인듯 마음속 얘기를 나누노라면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윤경렬옹이 향토사학에 빠져들게 된 계기는 순전히 '우리의 美'를 찾기 위해서였다. 함북 주을 촌사람이던 그는 광주학생운동을 지켜보고 비로소 '민족'에 눈뜨게 된다. 베토벤, 톨스토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밖에 몰랐던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풍속토우를 배우기 위해 일본에 3년간 머물렀던 그는 꾸밈과 허식이 많은 일본토우로는 우리의 美를 표현할 길이 없어 당시 개성박물관장이던 고유섭선생을 찾아간다.

"일본에는 뭐하러 갔어? 참된 아름다움이란 원래 있던 곳에서 싹이 터서 꽃피고 열매맺는 법이야."

단 두번의 만남후 유명을 달리한 스승을 뒤로 하고 그는 운명처럼 천년고도 경주로 향하게 된다. 그때가 30대의 젊은 시절. 우리 고유의 美라는 화두를 가슴에 안은 채….

그때부터 윤옹은 1천년 세월을 뛰어넘어 '신라스러움' 탐구에 몸과 마음을 바쳐왔다. 그는 스스로 경주를 지키는 50년 터줏대감임을 자처한다.

"경주 남산에는 절터만 1백15개가 있어. 천여년 세월동안 방치돼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안타깝지. 일제시대를 비롯해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고 없어진 것은 또 얼마인지…."

일제시대 일본인에 의해 조사된 절터 55개를 그는 세밀한 발굴조사를 거쳐 115개로 바로잡았다.

경주에 있는 것이면 길가에 나뒹굴고 있는 돌조각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그에게 남산은 이미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없다.

"또 한가지 우리의 자랑은 작은 것에 큰 것을 담는 능력이야. 석굴암은 비록 크지는 않지만 그 안에 삼천대천세계 우주를 다 표현해 놓고 있지."

신라의 예술은 자연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다. 인공이 자연속에 친화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게되는 그런 예술이다. 우리의 美를 찾기위한 긴 여정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아름다움이야. 우리 부처님은 마음씨 좋은 시골 아낙네, 익살맞은 아저씨의 얼굴 그대로지. 이렇게 정다운 부처님 얼굴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 다시 없어."

이러한 그에게 경주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계획이란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로 가능성조차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신라인들은 바위를 쪼아 부처님을 다 좋아하지만 특히 삼화령 아기부처님을 가장 좋아한다.

"경주어린이들이야말로 영원히 경주를 지켜가는 파수꾼이 될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는 지난해까지 40여년간 경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학교를 운영해 오

> "우리의 자랑은 작은 것에 큰 것을 담는 능력이야 석굴암은 크지는 않지만 삼천대천세계 우주를 다 표현해 놓고 있지"

"고속철 경주통과는 신라의 숨결 끊는 죄업"

신이 아프지만 깨진 돌조각 하나, 희미해져 가는 마애불의 모습 하나하나가 오래전부터의 도반인듯 마음속 얘기를 나누노라면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윤경렬옹이 향토사학에 빠져들게 된 계기는 순전히 '우리의 美'를 찾기 위해서였다. 함북 주을 촌사람이던 그는 광주학생운동을 지켜보고 비로소 '민족'에 눈뜨게 된다. 베토벤, 톨스토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밖에 몰랐던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풍속토우를 배우기 위해 일본에 3년간 머물렀던 그는 꾸밈과 허식이 많은 일본토우로는 우리의 美를 표현할 길이 없어 당시 개성박물관장이던 고유섭선생을 찾아간다.

"일본에는 뭐하러 갔어? 참된 아름다움이란 원래 있던 곳에서 싹이 터서 꽃피고 열매맺는 법이야."

단 두번의 만남후 유명을 달리한 스승을 뒤로 하고 그는 운명처럼 천년고도 경주로 향하게 된다. 그때가 30대의 젊은 시절. 우리 고유의 美라는 화두를 가슴에 안은 채….

그때부터 윤옹은 1천년 세월을 뛰어넘어 '신라스러움' 탐구에 몸과 마음을 바쳐왔다. 그는 스스로 경주를 지키는 50년 터줏대감임을 자처한다.

"경주 남산에는 절터만 1백15개가 있어. 천여년 세월동안 방치돼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안타깝지. 일제시대를 비롯해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고 없어진 것은 또 얼마인지…."

일제시대 일본인에 의해 조사된 절터 55개를 그는 세밀한 발굴조사를 거쳐 115개로 바로잡았다.

경주에 있는 것이면 길가에 나뒹굴고 있는 돌조각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그에게 남산은 이미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없다.

"또 한가지 우리의 자랑은 작은 것에 큰 것을 담는 능력이야. 석굴암은 비록 크지는 않지만 그 안에 삼천대천세계 우주를 다 표현해 놓고 있지."

신라의 예술은 자연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다. 인공이 자연속에 친화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게되는 그런 예술이다. 우리의 美를 찾기위한 긴 여정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아름다움이야. 우리 부처님은 마음씨 좋은 시골 아낙네, 익살맞은 아저씨의 얼굴 그대로지. 이렇게 정다운 부처님 얼굴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 다시 없어."

이러한 그에게 경주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계획이란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로 가능성조차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신라인들은 바위를 쪼아 부처님을 다 좋아하지만 특히 삼화령 아기부처님을 가장 좋아한다.

"경주어린이들이야말로 영원히 경주를 지켜가는 파수꾼이 될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는 지난해까지 40여년간 경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학교를 운영해 오

> "우리의 자랑은 작은 것에 큰 것을 담는 능력이야 석굴암은 크지는 않지만 삼천대천세계 우주를 다 표현해 놓고 있지"

만든 것이 아니라 바위속에 숨어있는 부처님을 찾아낸 것"이라고 강조하는 윤옹은 고속철도가 지나가게 되면 이미 경주 고유의 숨결과 색채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며 크게 탄식한다. 또 경주는 이미 경주시민만의 것이 아님을 한국인들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죽어서도 남산 수호신

윤옹은 20년전 환갑 때도 아들이 차려주는 잔치를 마다하고 그 경비를 남산 성역조사에 썼을 정도로 남산 보존에 공을 들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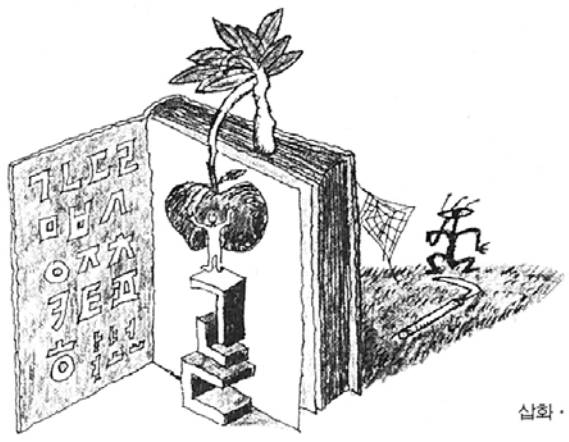
윤옹은 남산에 있는 크고 작은 부처님

며 어린이들의 문화재교육에 힘써왔다.

언제나 경주 얘기만 나오면 누구보다 신이 나는 사람, 50년동안 신라의 수문장으로 서라벌의 맥을 잇고자 노력해 왔듯이 죽어서도 남산의 수호신이 되고자 하는 그에게 벗들이 헌사한 시는 이렇다.

곱슬머리 타래진 얼굴 저편에
千年 신라가 누워 앓고 있는데
흰 두루막, 고무신을
솔가지에 걸어놓고
삼화령 높은 봉에
꿈을 캐는 그림자여.

경주=이윤호 기자



삽화 · 이기선

왜 사는가 알면 행복한 삶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㊼

삶 · 앎

아는 것 많아도 믿음 없으면 무명

아는 것이 힘이다. 앎은 삶을 행복하게 한다. 아는 것이 없다면 세상을 사는데 있어서 막힘이 많다. 요사이 사람들은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경주하고 있다. 지식의 축적이 삶을 바르게 하고 알뜰하게 하기 때문이다.

아는 만큼 잘 살 수 있다면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다면 앎과 삶은 등가성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불교에서도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것보다 알고 믿는 것이 좋다고 한다. 믿음없이 아는 것만 많으면 삿된 견해가 늘어나고, 알지 않고 믿는 것이 있다면 맹신만 증장된다고 하였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등가를 유지하게 된다면 보람된 것이다.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지속적으로 유지돼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살고 있는 생명체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다. 바른 견해와 바른 사고를 갖고 현상을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지적 용량이 풍부하여야 한다.

앎에는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무지와 상식 그리고 지혜이다. 무지는 무명심과 같아서 어떤 사실도 바르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식량(識量)이 없는 것이다. 앎에 대한 해석방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문맹이다.

문맹은 글자만 모른다고 해서 문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리나 이치를 적절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것은 무지인 것이다. 상식이란 자기 앞가름을 하는 것이다. 더 깊고 오묘한 이 법은 해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삶에는 별다른 지장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상식이란 이처럼 유용하고 유익한 것이다. 상식이하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세상을 사는데 많은 지장을 느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체지를 갖춘 사람으로 사통팔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문·사·철(文史哲)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심오한 우주의 이법과 인간사에 야기되는 제반사를 즉견적 안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관자(能觀者)를 말한다. 이와같은 능관자가 되면 관자재(觀自在)가 되어 무가애한 생활을 한다.

또한 삶에는 빈궁한 삶, 보통의 삶, 행복의 삶으로 구별될 수 있다. 가난과 질병에 찌들려 시름과 고통이 그치지 않는 삶은 빈궁함과 동시에 극고(極苦)이다. 극고의 곤궁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앎의 세계도 무지에 가까울 것이다.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업종에 종사하던간에 자기가 자기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자기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은 상식적 범주의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이다. 행복의 삶을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삶의 길이 무엇이며 삶의 목적이 무엇임을 확실하게 깨친 사람의 삶이 행복한 것이다. 재산의 다소, 명예의 고저, 신분의 차별을 개념하지 않고 초월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것이다.

있으면 웃고, 없으면 울고, 높으면 우쭐하고, 낮으면 비겁한 삶이 아니고 일체의 사상(事象)에 개의치 않고 사는 사람이 무상정각적 삶이다. 행복한 삶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깨쳐진 마음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삶과 앎은 하나의 등가치를 가지는 교설이다. 삶의 보람은 앎의 누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삶은 Sattva라고 표현되면 앎은 Boddhi로 명명될 수 있다. Sattva가 행복하려면 Boddhi가 극명의 깨달음이 되어야 한다. Boddhi가 암흑한 무명으로 전환되면 Sattva는 빈천보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Sattva가 빈곤 보통 행복으로 순환적으로 뒤바뀔 수 있는 것은 Boddhi가 무지 상식 지혜로 대체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Sattva가 삶의 자리를 차지하는 생명이라고 하면 Boddhi는 앎의 세계를 비추는 광명이다. 생명과 광명은 다르게 볼 수 없는 하나이다. 광명이 있으면 생명이 자재로울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길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면 생명이 행복하게 되고 앎의 빛을 바르게 비추어 나가면 광명이 자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현존적 즉물(卽物)에 밀착하고 있었다. 즉물견성을 버리면 빛과 삶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삶과 앎을 정각케 하는 교설인 것이다.

강원도 양양 동해사 도량에 내리는 자비광명의 法雨

92년 이후 매년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법비가 내리는 강원도 양양 소재 동해사(주지 서의륜 스님).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는 수천 명이 넘는 불자들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몰려든다. 올해도 법비는 예외없이 내리고 불자들은 환희의 탄성을 지르며 「나무아미타불」을 독송하고 있다.

동해사
☎ (0396) 672-2900

❝ 강원도 양양 동해사에서는 한국 근본불교실천협의회 주최로
오는 29일 부처님 하강기념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본 행사는 28일 만등불사를 접수하여 점등철야 기도회를
갖게 되며 29일 오후 1시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

부처님 하강기념 대법회 겸 만등불사 접수안내

오는 10월 28일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소재 동해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처님 하강기념 대법회 겸 만등불사**를 접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 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동해사
- 일 시 : 1995(불기 2539)년 10월 28일, 29일
  ① 10월 28일-만등불사 점등 철야기도회 ② 10월 29일-하강기념 대법회 봉행 오후 1시
- 연락처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동해사
- 전화문의 : (0396) 672-2900 / 서울 (02) 831-3886~7

"불교 中道사상 평화 공존 열쇠"

종교인대화 30돌 심포지엄서 김용정교수·자레스씨 주제발표


◇김용정교수


◇자레스드수자씨


◇리버트로효교수

문명 전환시대 종교의 새로운 역할 모색
환경보호·군축·여성폭력 등에 관심 촉구

근대이후 생태·문화위기의 상황속에서 정보화 사회의 도래등 문명의 전환은 새로운 종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크리스챤아카데미(원장 강원룡)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 18~20일까지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문명의 전환과 종교의 새로운 비젼'을 주제로 종교간대화 30주년기념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의 주제강연(18일)을 맡은 동국대 김용정교수는 '고학문명의 전환기 시대에 있어서의 종교의 역할'이란 발표문을 통해 "인간과 자연을 다시 통합하고 역동적 세계를 전체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자각과 의식개혁이 뒤따를 때에만 종교가 이 전환기에 시대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또 "인간이 우월주의를 버리고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협동의 철학을 창출할 때 국가·종교간의 대립을 상호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며 "양극단을 배제하면서 동시에 상호의존적인 연기(緣起)를 나타내는 불교의 중도(中道)사상이 집단간의 화합과 협력을 유도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일 방글라데시 '평화와 정의를 위한 종교협의회'의 자레스 드수자 원장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종교'를 통해 황금을 기초로하는 세계화를 '세계적 인종차별'로 규정, 이에 대한 다양한 불교적 대안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불교적 대안으로 △액킨(Aitkens)의 종교적 윤리적 가치체계로 돌아가라는 주장 △시바락사(Sivaraksa)의 선정(禪定) 자비 보시 등 불교적 개념에 근거한 삶의 체계를 의미하는 '불법(佛法)사회주의' △티즈데일(Teasdale)의 선(禪)이나 은둔, 무아봉공(無我奉公)과 예언자적 행위를 내포하는 '지구적 영성(靈性)' 등을 소개했다.

그는 또 세계화 시대에 종교인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로 △수자원의 보호 △지구온난효과와 핵공해 예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의 균형 △생태계 보호 △훼손된 자연의 복구 △군수산업의 전환 등을 들었다.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 생태학적 운동과 페미니즘의 합성어)에서 본 생명'을 발표한 네덜란드 니즈메겐 가톨릭대학의 리버 트로흐교수는 여성과 제3세계인들에 대한 폭력과 자연의 파괴를 초래하는 세력들을 방어할 새로운 종교적 가치를 모색했다.

이밖에 영산대 한내창교수가 '정보화사회와 종교', 이화여대 최준식교수가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생명', 서울대 소광섭교수가 '현대과학에서 본 문명' 등을 발표했다.

김재경 기자

만해·조지훈詩 공통분모는 '비판성'

윤석성교수 비교논문 눈길

만해 시와 조지훈 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윤석성 동국대교수(시인)는 지난 20일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소장 홍기삼)가 주최한 '조지훈의 문학과 사상' 주제의 제15차 학술회의에서 '조지훈 시의 특질:만해와 관련하여'를 통해 두 시인의 시적 정취와 문학사적 위치를 비교분석했다.

선비정신과 불이사상 수용은 '차이점'

윤교수는 지훈과 만해 시의 공통점으로 전통성과 비관성을 들었다. '전통성'은 〈님의 침묵〉에 나오는 시와 시어를 통해 확인되고, '비관성'은 지훈의 〈역사 앞에서〉 이후 나타나는 메시지와 만해의 투철한 현실 인식에서 드러난다는 것.

반대로 두 시인의 이질성은 다기성(多岐性) 대 불이성(不二性), 고절성(孤絶性; 선비의식) 대 지향성으로 나타난다.

조지훈이 중심 이동이 잦고 자아와 세계 인식이 취약한 반면 만해는 불교적인 정신의 불이성을 나타낸다. 즉 만해에게는 '님'과 '나'가 불이이고 여성과 남성이 불이이다. 또 만해의 시가 역경속에서 비극적인 지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지훈의 고절성과 대비된다. 눈물의 고통이 이별의 환희로 보상받는다는 것이 만해시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美종교학회 학술회의, 내달 18~21일

미국종교학회(AAR; American Academy of Religion)는 11월 18~21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연차총회 및 학술회의를 연다.

불교분과의 주제로는 ◇18일 : △종교철학의 자원으로서의 불교-인격 사상 △인도불교의 문헌, 범주, 수행 △일본불교와 현대화 ◇19일: △도루가와부터 메이지시대의 선불교 △중국 오대의 룰타 토착화 △북미 문학의 불교 △전승예식에서 무엇이 어떻게 전승되는가 △동아시아에서의 불교 주체화 ◇20일: △불교윤리의 재고 △禪의 정체성의 원류와 전승에서의 송대 선의 중요성 △배움의 기관-배우는 기관 △대승불교의 전통적 실재 등이다.

AAR 연차총회는 해마다 11월 셋째 주말에 시작되는데 7~8천여명의 종교학자들이 참여한다. AAR은 단일 학회로는 세계 최대의 단체이다.

동양철학회 월례발표회

한국동양철학회(회장 송석구 동국대총장)는 오는 27일 오후 4시 동국대 동국관에서 월례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이만 동국대교수가 '중국 유식의 심성론'을, 중국 북경대 루우열(樓宇烈)교수가 '중국 전통문화의 인문(人文)정신'을 각각 발표한다.

(02)260-3184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김용사

海底泥牛含月走
(해저니우함월주)
岩前石虎抱兒眠
(암전석호포아면)

鐵蛇鑽入金剛眼
(철사찬입금강안)
寬嵩騎象鷲驀牽
(곤륜기상로자견)

바다밑 진흙소가 달 물고 달아나고
바위앞 호랑이는 아이들 안고 잠자네

철로된 뱀이 금강역사의 눈속을 뚫고 들어가며
곤륜에서 코끼리를 타니 자고새가 물고가네

대강당

해설 김용사 대강당에 붙은 이 주련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다. 모두가 허황된 사실을 읊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선시'란 측면에서 이해를 할 때 뭔가 알듯해 진다. 확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알듯해 진다'는 표현을 굳이 하는 것은 필자나 독자가 저 깊은 선(禪)의 깨우침 속에 들지않았을 경우에 대한 합당한 표현을 하려함이다.

아무튼 이 내용은 이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 선사의 막힘 없는 기쁨이 토해내는 게송이란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글자에 얽매이면 알 수가 없다. 어쩌면 굳이 이렇게 문자로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뜻을 왜곡시키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진흙 소가 바다밑에서 달을 게송이란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글자에 얽매이면 알 수가 없다. 어쩌면 굳이 이렇게 문자로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뜻을 왜곡시키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진흙 소가 바다밑에서 달을 게송이란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글자에 얽매이면 알 수가 없다. 어쩌면 굳이 이렇게 문자로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뜻을 왜곡시키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깨우친 선사의 막힘없는 오도송

상식과 비상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상식도 인간의 좁다란 사고영역 안에서 만들어진 허울이고 비상식도 마찬가지다. 그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를 끊는 일, 그것이야말로 선수행자가 화두를 깨치는 일과 같은 번쩍임이다. 진흙소면 어떻고 철사뱀이면 어떤가. 그 소와 뱀의 형체에 대해서 혹은 존재에 대해서 조차 끄달리지 않는 경지를 넘어서지 않고는 선수행의 끝자락을 더듬었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마음을 비우고 경계를 훌쩍 넘어 상식도 비상식도 없는 곳에서 곤륜산의 코끼리를 타보자.

〈안동 경안중 교사〉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문 대학생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느라고 합니다만 제 그릇에 맞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면 죽비를 내려주시고요. 〈하동철·충남 천안 목천〉

답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고 평생을 두고 정진하겠노라고 했죠.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주인공 속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한 것이지 학생의 껍데기가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껍데기 아닌 주인공을 믿으세요. 그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자신이 더 발전하고 승화하는 것도 주인공이 한다고 굳게 믿으세요. 믿지 못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죽비를 쳐달라고 하는데 이미 죽비로 맞은 것입니다. 누가 때렸느냐? 자기가 자기를 때린 것이지요. 학생이 묻고 내가 대답할 때 벌써 하나가 되었으니 죽비를 맞은 사이없이 맞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 찰나찰나의 생활을 벗어나서는 내가 없고 나를 벗어나서는 생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남, 죽음, 삶이 그대로 부처님법입니다. 그걸 알려면 일체를 주인공에 맡기고 나는 쑥 빠져 보세요. 그것이 삼천대천세계를 아는 길입니다.

어떻게 사는게 바른 도리일까요

문 저는 자랑할 게 아무 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는 도리만은 알아야 하겠다 싶어 경전을 여러권 읽어도 보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칠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게 도리에 맞는 것인지 가르침 바랍니다.

〈이세순·서울 노원구 중계동〉

답 인생이란 아시다시피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게 아니지요. 부모자식 간이라도 대신 먹어주고 대신 아파줄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라해도 제자를 대신하여 잠자 주고 죽어줄 수 없지요. 그러니 모두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 생 왔다 가는 길에서 어디가 분이냐고 찾아다니는데, 더구나 문자를 통해 알아낼 양으로 이 책 저 책을 뒤적이는데 그렇게 해서는 문 찾기가 어렵지요. 본래 이 길이 이게 문없는 문이니 그런 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주 쉽다, 왜냐, 자든지 깨든지 일어나든지 앉았든지 뭐든간에 '네놈에게 주인이 있어 움직거리게 하는 것이니까 네 몸뚱이, 네 인생 네가 끌고 다녀라' 하고 척 맡기라는 겁니다. 아, 어차피 한 철 놀다가는 인생이고 잠깐 살다가 때가 되면 옷 벗어 던지고 새 옷 입고 나올텐데 뭘 그렇게 안달하고 궁상떨고 할 게 있겠습니까?

맡겨 놓으면 편안해요. 맡겨 놓고 즐겁게 춤추고 놀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찍 될 건 일찍 되고 천천히 될 건 천천히 되고 하는 것이지 안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자꾸자꾸 발전해서 결국은 성불할텐데 뒤가 안타까울 일 있겠습니까?

수업중 잡념에 들지 않게 하려면

문 학교 선생입니다.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 중에 집중을 하지않고 딴생각 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게 늘 걱정입니다.

저도 설법을 듣는 중에 다른 생각에 잠겨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아이들도 그런가 싶습니다. 어찌해야 수업 중에 잡념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지요?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만 한 말씀 고대합니다.

〈주영진·서울 강서구 등촌동〉

답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진심을 기울여야 전달이 잘 되겠지요. 선생님께서 온 정성을 집중해 애들한테 에너지를 쏟는다면 아마 7,80%는 따라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대목 한 대목씩 물리를 틔워주면 저절로 흥미를 갖게 될거고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의 그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에너지를 적절히 불어 넣어주게 되겠지요.

아이들 보고 왜 딴 생각하느냐고 야단을 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아이들이라해도 제가 먹어보고 스스로 밥맛을 알아야 제밥 찾아먹는 것이지 강제로 먹인다고 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먼저 느끼고 맛을 보아야만 합니다.

스님은 용(用)을 강조하시는데…

문 스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늘 용(用)에 대해서만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그점이 미땅치 않군요. 〈강원도의 한 산승〉

답 날보고 왜 용, 용 하느냐고 하시는데 말씀이 좀 우습군요. 우리가 먹고 자고 깨고 똥누고 하는 게 그대로 용인데, 그대로 여여한 우리들의 법인데 용을 빼놓으면 그냥 송장이 되자는 말씀입니까?

아, 마음이 있음으로써 용이 있고, 생명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온통 용이 있는 것이지요? 눈 한번 치뜨고 내리뜨는 것도 용인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가르쳐야 한다면 송장법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이다, 용이 아니다를 떠나서 그대로 생활 자체가 공부의 재료이고 부처님의 가르치신 바 법이 아니겠는지요.

그래서 늘 이런 말 합니다. 지금 자신이 얼만큼 진보되고 물리가 터져서 지혜롭게 맡은 일을 해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가정을 잘 이끌어 가고 있는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얼마만큼이나 진실되게 노력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실천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심법으로 무전여행을 하며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도리의 구현이 있다고 말입니다. 참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뜻으로 잡수시길 바랍니다.

제2회 전국 교정시설 교무과장 연수 법회 및

재범률 제로화운동 결의 대법회 안내

1989년 부처님의 자비, 보시정신으로 교정시설내 수용된 재소자들을 효율적으로 교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가 설립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본회에서는 제2회 전국교정시설 교무과장, 교무계장, 불교담당, 불자회장 연수법회와 제산대덕 큰 스님들을 뫼시고 재범률 제로화운동 결의 대법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그들을 위로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39년 10월 일

일 시 : 불기 2539(1995) 11월 6~7일
장 소 : 엠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16일 오후6시~8시30분) 풍전호텔
격려사 : 승월주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안후만(법무부 장관)
주 최 :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 (02)813-8842, FAX 812-8841
후 원 : 법무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대한불교진흥원, 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 한국불교포교사협회, 불교TV, 불교방송, 법무부 갱생보호회 불교협의회, 문화재기능인협회, 그 의 교계 주요 언론사
동참금 : 5만원(교화보시금, 만찬)
은행지로 7615731

한일은행 319-045950-01-001(예금주:한, 불, 선)
외환은행 119-13-08005-1(예금주:한, 불, 선)
조흥은행 394-06-162425(예금주:한, 불, 선)
상업은행 130-05-001140(예금주:한, 불, 선)
우 체 국 012070-0056581(예금주:한, 불, 선)
국민은행 029-01-0355-685(예금주:한, 불, 선)
농 협 064-01-164453(예금주:한, 불, 선)

※10월 31일까지 참석여부를 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참석못하시더라도 다소나마 보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명 안덕암 대종사
고 문 송월주 박성도 유동산 이법홍 박승용 석일화 우영명 석대산 김대호 문구암 정보성 권태허 천혜안 선각해 김도용 권범호 박운파 전야옹 이동광 이청봉 록 정

대회장 김명윤
지도위원 : 박서봉 전운덕 김락혜 이홍파 김대호 설대운 김법은 김혜정 정혜일 김광태 이태옥 정법륜 정희수 이법덕 김명곡 정희수 안효강 배일공 이대화 윤지명 김법우 신명관 김해곡 정법승 현봉해 소 암 권태순 전홍수 조일형 김무해 최혜초 이혜우 김혜운 서의륜 김동암 박의성 정덕일
설정 현근 정현 지홍 현해 철웅 법장 법성 무공 일타 설조 지관 고산 정관 목산 법조 도영 종열 현고 천운 중원 혜산 월운

봉행위원장 이혜철
부위원장 이기남 최홍주
이 사 남경희 이일광 홍환구 양운수 임월자 신동희 정 현 최중찬 이한봉 이용모 이선행
지부장 최혜산 박성건 이지홍 전덕분 김화숙 곽태일 박철수 김맹례 송영애 한상호 김혜광 권숙욱 김미영 장명희
자문위원(무순)
강선영 강희찬 곽정출 권익현 권해옥 김동권 김동근 김문기 김영일 김운한 김정수 김진영 김찬우 노인도 박구익 박규식 박우병 박준규 박태준 배명국 서석재 손승덕 손두호 송영진 신재기 유수호 이건영 이순재 장영철 정동호 정재철 정태영 조영장 주양자 최돈웅 허재홍 황윤기 권오태 강경식 강보성 곽정현 고세진 고재청 고원준 김근수 김노식 김병수 김 식 김양배 김영생 김 집 김진기 김태호 김정길 김홍만 박경석 박권흠 박유재 박익주 박지원 박현태 배명인 손주환 손태곤 백찬기 선민선 안영기, 양재항 연제원 염길정 윤길중 이강희 이기삼 이규호 이상민 이용택 이중희 이철승 임인규 전병우 전종천 전용원 정시봉 조강목 조기상 조상대 조용직 조일제 조종익 조만후 진치범 최명헌 최영덕 최재구 함종한 황 섭 황성균 황대봉 황병우 박희태 한정섭 송영길 목정배 신영순 허문수 권오현 강성호 김시영 김주량 최문영 안규준 성순경 구자순 남강수

추진위원장 정성도
부위원장 : 서철화 서무공 류혜준 석법정 박강봉 김무찰 김해동 김일남 홍숙희
추진위원 : 세용 원산 혜봉 석우 칠우 금신 경담 학성 영계 청운 보화 김법은 석혜명 석혜련 이고허 손가산 석혜득 석혜춘 정지현 광명행 청정행 백운제 이원명 최성엽 김은애 김묘묵 김해운 이각명 김형민 고진법사

집행위원장 정혜성
부위원장 : 장각성 장사공 노병섭 박운곡 문부성 김성수 박일서 정정순 김용직 정광수

기획분과위원장 : 남월산	부위원장	이혜천	정동식
재무분과위원장 : 김무공	부위원장	장동순	손종안
의전분과위원장 : 박만화	부위원장	강혜일	손상묵
섭외분과위원장 : 이법해	부위원장	주형근	이정회
홍보분과위원장 : 심만춘	부위원	남궁상	빈태봉
		김묘주	김윤호
동원분과위원장 : 혜 각	부위원장	김세웅	손안식
시설분과위원장 : 일 도	부위원장	허 은	이광남
경비분과위원장 : 장운혁	부위원	임 은	손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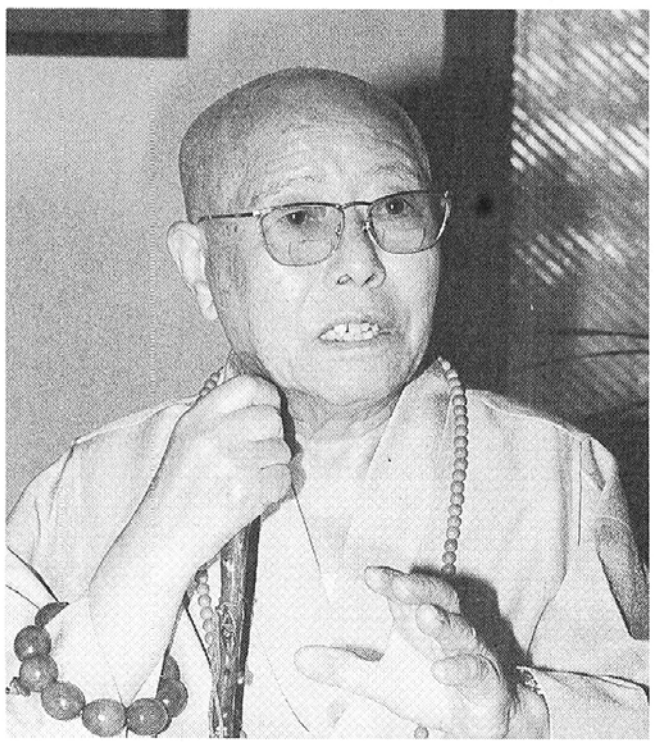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후원회원
한국불교 포교사협회 회원, 동작구 불교연합회 회원
그외 전국 각 사암주지, 불교단체 대표 등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회장 이 혜 철 합장

불보살 찬탄 법답게 불러야 '공덕'

범패 안차비소리 해방후 첫 강의—송 암 스님

"아—— 으——" 마치 범종소리가 길게 울려퍼지는 듯한 범패소리. 이 소리와 작법(춤)을 웬만큼 하는 사람이면 승속을 망라해 모두 송암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지정)에게 사사받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불교의식의 요체인 범패를 62년 동안 지켜오며 후진을 길러온 한국불교 어산 종장 송암스님. 올해로 꼭 80세의 고령에도 오는 27일부터 봉원사영산재보존회(중요무형문화제 제50호 지정) 부설 범음대학에서 해방이후 처음으로 범패의 안차비소리 일체를 직접 강의한다. 더구나 지난 8월 윤달을 누구보다도 바쁘게 보낸 노익장의 송암스님을 봉원사에서 만났다.



봉원사 부설 범음대학서

—스님. 목소리도 타고난 미성(美聲)이라 청명하시지만 건강도 좋아 보이십니다.

수 요 인터뷰

안거·점안·재의식등 14과목 개설 창법 체계전수

입으로 소리전하고 마음으로 익혀야 성음보존

▲무척 좋아요. 19살에 출가해 지금까지 매일 새벽4시면 꼭 일어나 주송을 해왔습니다. 세끼 공양도 보리밥에 콩을 뒤 고슬고슬하게 먹는데 식욕도 좋지요. 그러나 어쩌니 저쩌니해도 평생 불보살님의 찬덕을 노래 부르고 춤추며 언제나 환희심 속에 살아왔으니 젊어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다 부처님 가피지요.

—이번에 해방이후 처음으로 범패의 안차비소리 일체를 체계적으로 강의하신다구요?

▲범패의 창법에는 안차비소리, 홋소리, 짓소리 그밖에 화청이나 회심곡 등이 있어요.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우렁찬 합창곡과 같은 범패소리는 여럿 대중이 모여하는 짓소리의 창법인데 반해 안차비소리는 주로 산문으로 된 부처님 가르침을 촘촘히 읽어나가는 듯한 '소리'입니다. 보통 의식을 총지휘하는 법주가 요령을 흔들며 하는 염불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상주권공 각배 영산 등을 다 마쳐야 무난히 소화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가르칠 사람도 드물었고 가르쳐야 할텐데하는 책임감만 무거웠습니다. 늦었지만 총 정리를 해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다행스럽고 많이들 배웠으면 합니다.

—강의기간이 1년과정인데요.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안차비소리의 바탕은 다 익히게 되는데 기간이 촉박한 편이지요. 따라서 수업받고 각자 충분히 시간을 들여 열심히 복습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법요의식을 비롯해 각종 재 동·하안거의식 등 관혼상제의식을 여법히 치루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범패창법이지요. 주로 상단의 불보살, 중단의 신중, 하단의 영가들에게 공양재물을 권하며 축문올리는 소리입니다. 강의는 △생전예수재 △중례 △시달림 △다비문 △신중대례 △관음예문 △4명일(明日) 대령 △점안의식 △구병시식 △전시식 △각종 소 △순당절차 △식순절차 △회향 및 소대절차 등 14과목입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지내는 불교 의식에 주로 필요한 소리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안차비는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범패 창법은 아니었는지요.

▲시방 세상이 뭐든 간단히 하는데 젖어있어 특히 안차비소리를 내는 의식들이 축소 통합돼버리거나 생략되어 진 것들이 많습니다. 정성이 부족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의식이란 진정 법답게 올려져야 공덕이되고 회향하는 것이며, 잘못하면 오히려 벌을 입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강의는 지금까지 불교계에서 늘 의식을 지내온 부처님 출가절, 열반절, 탄신일, 성도절과 동·하안거, 한식·백중과 점안식, 각종 재, 구병의식에 필요한 안차비소리를 가르쳐 제대로 법답게 지내도록 할 참입니다. 그리고 안거때 자칫 산란해 지는 마음을 다시 추스리게 해주는 중요한 의식임에도 해방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장돼버린 관음예문도 꼭 가르쳐 다시 맥을 이으려고 합니다.

—흔히 교과서 없이 구전심수(口傳心授)로 배우는 것으로 알려진 범패를 어떻게하면 더 잘 할수 있을까요. 물론 이번 교육에 수강생들이 스님의 음율 음정 등을 똑같이 배우려고 녹음기도 동원하고 할테지만요.

90살되면 '석문의범' 집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범패의 신묘한 성음을 기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입으로 소리를 전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 들일 뿐일 것입니다. 근래 오선악보지에 범패를 채보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범패의 제 맛을 도저히 살릴 수는 없어요. 단지 범패의 뼈대만을 기록할 뿐인데 그나마 범패를 현대사람들에게 널리 접하게 한다는 점에서 고마운 일이지요.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재(齋)가 자주 열리고 범패가 대중에게 친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패를 배우겠다는 젊은 스님들도 많이 생기고 자연히 전수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범패는 항상 소리를 외고 읊는데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합니다. 교과서도 없이 마음으로 하는 음성공양이라 스스로 소리를 내고 더 잘하려는 연구가 따라야지 잠시 놓으면 금새 잊어버리고 말지요.

—지난 윤8월은 생전예수재로 바쁘게 보내셨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계의 윤달풍속도 많이 달라졌지요?

▲아주 많이 변했어요. 큰 절부터 작은 암자까지 모두들 생전예수재를 지내고 있어요. 과거 윤달 재가 열손가락 안이었는데 비해 올해만 20여차례를 지냈으니까요. 범패가 대중화되는데 큰 역할을 한 셈이라 반가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법한 의식절차가 마련돼야하고 동참대중 모두 온 마음을 쏟아야합니다. 범패를 널리 알린다는 명분만 앞세워 잘못 전해지는 것이 내가 가장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나는 90살부터는 일체 외부 출입을 않고 들어앉아 〈석문의범〉을 쓰려고 해요.

—스님의 원력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그 공으로 이번 안차비소리 강의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 위영란 부장

나의 수행일기

박 규 채 〈탤런트〉



매일 아침 염불하며 전법발원

부모님 기도로 병고쳐…가피입었으니 회향 당연

인천 앞바다에 덩그러니 떠 있는 영종도의 명산 백운산 중턱의 약수암과 그 일대의 양지 바른 골.

내 어머니의 발원으로 이곳의 옛 절터와 약수를 찾아내어 약수암이라는 암자를 이룩함으로써 내 생애와 인연이 된 이곳은 나의 20대에서부터 50대에 이른 오늘까지의 세월동안 부모님이 계신 고향이자 내 마음의 찌꺼기를 풀어내는 수행처다.

촬영이 없는 날이면 나는 어김없이 약수암을 찾는다. 집안 대대로 불가(佛家)인 덕택에 절이 나에게 가까이 있는 듯도 하겠지만 나에게 있어 불교는 생명의 은인이다.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겸손의 종교다.

7살이 되던 해 겨울. 얼음을 지치며 놀다 우물가 근처에서 넘어진 일이 있었다. 그이후로 내 생은 고통의 시작이었다.

넘어진 이후로 생긴 나의 병은 내 부모님을 동분서주 애타게 했다. 흥역인 줄 알고 나는 어느새 다시 활력을 찾곤 했다. 그러나 약수암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면 난 은근히 마음이 조급해지는걸 느꼈다. 그 또한 몸이 아파 앓았던 고통과 진배없는 마음의 고(苦)가 되었다.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 여러 날을 보내다 내 부모님의 모습을 떠 올렸다. 그저 그리워서였다.

언제 어디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염주알을 돌리며 명호를 외시던 부모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떠 올리다 난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다. 세세생생, 이곳저곳에 부처님이 아닌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도 걸르지 않고 '옴마니반메훔' 기도를 드린다.



치료를 계속했던 것이 늑막이었던 것이다. 평소 신심이 돈독하시던 아버지는 베낭에 나를 넣어 등에 업으시고 전국 곳곳의 절을 찾아다니며 정성들여 치유의 기도를 올리셨다. 그러다 정착하신 곳이 강원도 안변에 있던 천곡사. 아버지는 그곳에서 나를 부처님께 맡기셨다.

하루하루를 자식의 쾌유를 빌며 부처님 인연법에 의지하시던 부모님은 매일같이 한결같은 기도를 올리셨다. 한줄기 빛이 보이는 일이 생겼다. 어머니가 한 청년이 추운 겨울 얼음을 깨고 다가와서는 잉어를 내놓는 꿈을 꾸신 것이다. 선몽에 한가닥 희망을 거신 부모님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더욱더 정진에 몰입하셨다.

그러던 어느날, 진짜 한 청년이 잉어 한 마리를 들고 와서는 내 놓았다. 그 후 나는 거짓말처럼 낫게 되었고,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살게됐다.

부처님의 가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된 나는 평소 부모님이 보여 주시던 모습을 따라 절을 찾아 삶과 죽음,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왔던 곳과 죽은 후에 가야할 곳에 대한 집착을 스스럼없이 떨쳐 버리고 불심을 닦고 있다. 부처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이렇게 도와 주셨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부모님이 그리워서 힘없이 지친 모습으로 부처님 앞에 앉으면 불교의 교리도 사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는 그저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며 살아 갈 뿐이다.

언제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는 동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한다. 또 다른 하나의 포교방법이라고나 할까. 부처님 가피를 받았으니 회향하는건 당연한 일일터이다.

나이가 들어 욕심이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롭고 인정이 넘치는 세상의 참맛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다. 불자들끼리 싸우는 일도, 욕심에 불사를 그르치는 일도 없는.

부산·광주 불교방송 지방국의 개국과 불교TV의 개국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이 쉽고, 가까이 부처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됐으니 이제 곧 내 바람대로 성취되리라 믿는다.

나는 그저 예나 다름없이 기도하고, 부처님이 내게 주신 가르침대로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 가련다. 인간의 행복이나 부귀영화 등 존귀함은 전생에 닦은 바 인연이 되고, 금생에 닦는 바대로 얻어지는 법, 그저 겸손하게 열심히 내 직업에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충실하며 끝없는 노력으로 살고 싶은 것이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축 창간1주년

광주 불교 운전자회
회 장 김경수
사무국장 유기근
총 무 김용문
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두암동 (국일가스2층)
전화 : 062-266-4991

광주 불교 능인회
회장 김 두 원
• 사단법인 광주 불교 능인 문화원
• 광주 불교 능인회 새마을 금고 } 임직원일동
• 지장불교 장의사
주소 : 광주 광역시 동구 계림2동 480-7
전화 : 062-226-5161/4 팩스 : 062-234-8485

대한불교조계종 원 효 사
주지스님 현 지 합장
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전화 : 062-262-0321

대한불교조계종 증 심 사
주지스님 영 조 합장
주소 : 광주 광역시 동구 운림동 56
전화 : 062-226-0107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조실스님 천운 합장
광주 불교대학·대학원
원장 김두원 / 학장 경철 / 부학장 최성렬
주소 : 광주 광역시 서구 치평동 251-3
전화 : 062-375-7600/3

광주 불교 사암연합 신도회
회장 안진오 외 임원 및 신도 일동
주소 : 광주광 역시 서구 치평동 사서함 1-2(구 상무대 무각사 내)
전화 : 062-376-3225

광주 불교 사암 연합회
회장 영조 합장 외 회원일동
주소 : 광주 광역시 서구 치평동 사서함 1-2(구 상무대 무각사 내)
전화 : 062-376-3223/4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32〉

道安法師 遺誡九章 (도안법사 유계구장) ③

其三曰 卿已出家 永辭家族
기삼왈 경이출가 영사가족
無親無狹 淸淨無欲 吉則不歡 凶則不慼
무친무소 청정무욕 길즉불환 흉즉불척
超然縱容 豁然離俗
초연종용 활연리속
志存玄妙 軌眞守樸 得度魔濟 普蒙福祿
지존현묘 궤진수박 득도광제 보몽복록
如何無心 仍着染累
여하무심 잉착염촉
空尋長短 銖兩升斛 與世爭利 何異僮僕
공쟁장단 수량승곡 여세쟁리 하이동복
經道不明 德行不足
경도불명 덕행부족
如是出家 徒自毁辱 今故誨示 宜自洗浴
여시출가 도자훼욕 금고회시 의자세욕

그 셋째. 그대 이미 출가했으니 길이 가족을 마다한 것이다.

가깝고 멀게 없으며 청정무욕하여 길하다고 반기지 않고 흉하다고 슬퍼 않는다.

초연히 모든 것을 놓고 활연히 세속을 떠나며

뜻을 불법에 두어 진리를 본삼아 질박함에 머물어 법을 얻어 널리 제도하고 두루 복록을 받게해야 한다.

그렇거늘 어찌 무심하여 세속에 집착해 물들려 하는가.

쓸데없이 길고 짧음을 따지고 피와 말로 헤아려 세속과 더불어 이해를 다투면 어찌 하인배와 다르랴.

공부엔 밝지 못하고 덕행도 부족하니 이런 출가는 자신을 헐뜯고 욕되게 함이라 이제 짐짓 가르치노니 마땅히 심신을 씻고 씻을 지어다.

其四曰 卿已出家 號曰道人
기사왈 경이출가 호왈도인
父母不敬 君帝不臣
부모불경 군제불신
普天同奉 事之如神 稽首難敬 不計富貧
보천동봉 사지여신 계수치경 불계부빈
倘其淸修 自利利人
상기청수 자리리인
滅割之重 一米七斤
감할지중 일미칠근
如何怠慢 不能報恩 倘縱逸逸 身意虛煩
여하태만 불능보은 의종유일 신의허번
無戒食施 死入泰山 燋鐵爲食 融銅灌咽
무계식시 사입태산 요철위식 융동관인
如斯之痛 法句所陳 今故誨約 宜改自新
여사지통 법구소진 금고회약 의개자신

그 넷째. 그대 이미 출가했으니 이름이 도인이다.

부모를 모시지 않고 군왕의 신하되지 않는다.

널리 천하가 한가지로 받들고 섬기기를 신같이 하며 머리 조아려 공경하나 빈부를 헤아리지 않으니

오로지 청정행을 닦아 자리이타 함이라.

덜어내고 베어낸 시주공양의 무게가 쌀 한톨에 일곱근 상당이다(그만큼 무겁다는 뜻)

어찌 태만하여 은혜에 보답치 않고 방자히 놀아나는 일에 몸을 맡겨 심신으로 헛되고 번잡하게 하는가.

계행 없이 시주밥 먹으면 죽어서 태산지옥에 떨어져 끓는 쇠로 밥을 삼고 끓는 구리를 마시게 되리니

그와같은 고통은 법구경에서 진술한 바이라 이제 짐짓 가르쳐 약정하노니 마땅히 고쳐 거듭 날지어다.

其五曰 卿已出家 號曰息心
기오왈 경이출가 호왈식심
穢雜不着 惟道是欽
예잡불착 유도시흠
志夢淸潔 如玉如氷
지참청결 여옥여빙
當修經戒 以濟精神 衆生蒙祐 竝度所親
당수경계 이제정신 중생몽우 병도소친
如何無心 隨俗浮沈 縱其四大 恣其五根
여하무심 수속부침 종기사대 자기오근
道德盜淺 世事更深
도덕수천 세사경심
如是出家 與世同塵 今故誡約 幸自開神
여시출가 여세동진 금고계약 행자개신

그 다섯째. 그대 이미 출가했으니 이름하여 식심(청정심 · 무심)이다.

더럽고 잡스런 것에 집착말고 오로지 도만 흠모하라.

뜻을 맑고 깨끗이 하되 옥구슬 같이, 어름 같이 하여

마땅히 경론과 계행을 닦아 정신을 가즈런히 하면 중생이 도움을 입고 아울러 부모 · 친족 · 벗들을 제도하게 된다.

그러하거늘 어찌 공부엔 마음을 두지 않고 세속을 따라 부침하며 사대 · 오근을 방자하게 할 것인가.

도덕은 마침내 얕아지고 세간일만 더 깊어질 것이니

이같은 출가는 속진과 한가지라 이제 짐짓 경계하여 약정하노니 바라건대 스스로 정신차릴지어다.

그 넷째. 그대 이미 출가했으니 이름마다 윤리 · 도덕 아닌 말씀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3천위와 8만수행을 갖추신 분입니다. 위엄과 거동이 3천가지, 실행에 옮긴 부처님의 행이 8만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3천위 8만행을 듣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는 않고 그저 부처님 앞에 달라며 바라기만 할 뿐 입니다.

화엄경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얻는 복은 '거러지' 복이요. 주는 복은 '보살복'이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거러지 복을 계속 지으려고만 하니 참 암담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 나도 남과 같이 남에게 자비심을 베풀게 해 주세요" 라고 빌어야 그 사람에게 복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복을 달라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금생 내내 불교를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꿔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인연으로 종을 삼아 심신을 주창했으며, 믿음으로 실천에 옮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심(信心)입니다. 신심은 믿을 '신' 마음 '심'자 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은 너희 마음을 믿어라"며 스스로의 마음에 가책되는 행을 하는 자는 당신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자는 '무위무작(無爲無作)(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고 조작함이 없는 것)'으로 행을 삼아 생을 살아가니 죄지을 일이 없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애착을 가지고 아웅다웅 싸울게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공자께서는 인 · 의 · 예 · 지 · 신(仁 · 義 · 禮 · 智 · 信)으로 종을 삼아서 신의를 주창했습니다.

이렇듯 세계 모든 성인을 통틀어서 살펴본다면 그 어느 성인도 윤리도덕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분 가운데 일거수 일투족 도덕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분은 오직 부처님 뿐입니다.

우리 스님네들이 입산해서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초발심자경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큰자는 형으로 삼고, 작은 자는 아우를 삼으라' '높은 소리로 침뱉지 마라' '웃짓을 헤치고 팔을 흔들고 돌아다니지 마라' '병든 사람이 있거든 자비한 마음으로 간호를 잘해라' '음식을 먹을 적에 쩝쩝 음식 씹는 소리, 후루룩 물마시는 소리를 내지 마라'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자기 몸 가운데 잘못됨을 항상 꾸짖고 고쳐 착한데로 옮기라' 고 말씀하셨다. 또한 8만대장경의 경 · 율 · 론에 윤리 · 도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율장〉에는 '자기의 잘못을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마라' 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근본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의 허물은 열가지도 넘기 마련입니다. 자기 허물 없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입에 담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율장은 불문에 귀의했을때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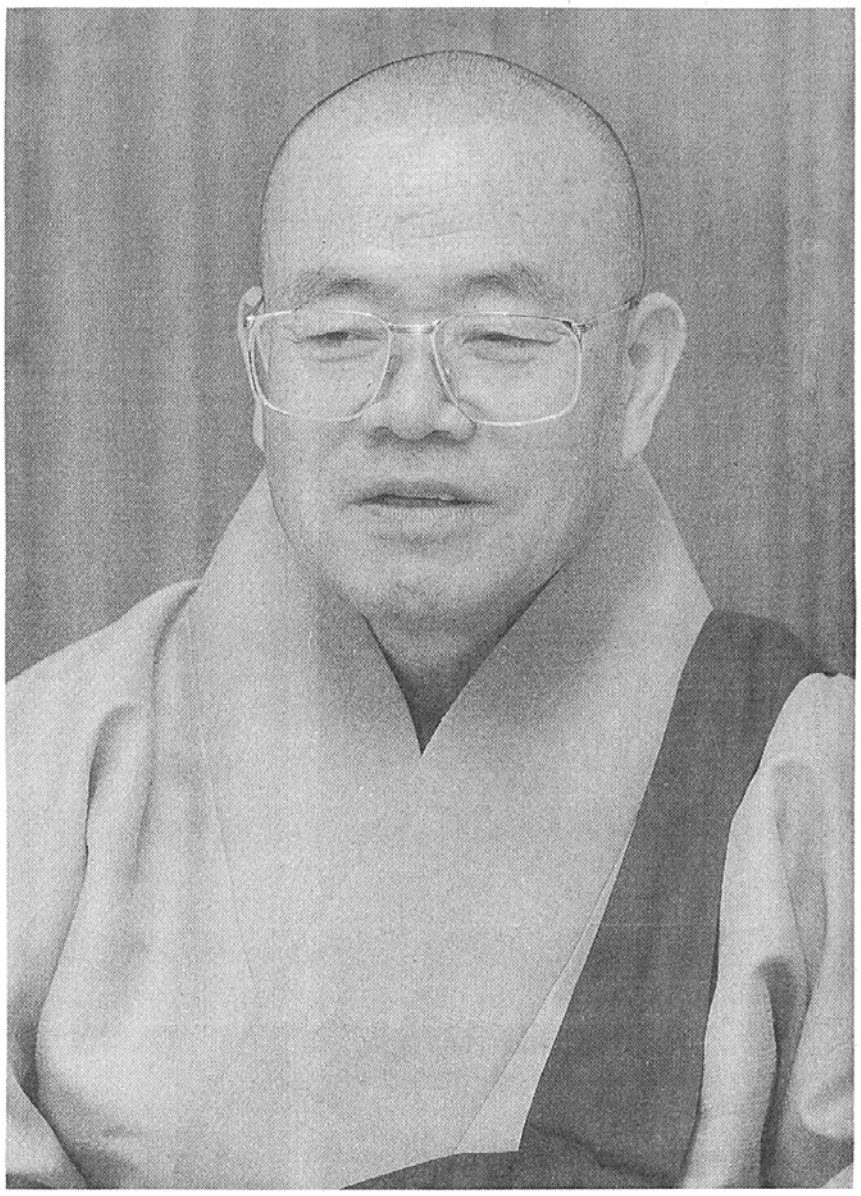
뜻을 불법에 두고 진리 본삼아 행하고

세속 이해에 집착말고 道만 흠모하라

"베푼다는 마음으로 살면

★ 지상법석

고산스님 〈쌍계사 주지〉



약력
- 1934. 1. 27 경남 을산 生
- 48년 동산스님 은사로 범어사 득도
- 61~69년 청암사 범어사 강사
- 69~75년 법륜사 · 조계사 · 은해사 · 쌍계사 주지

지금의 우리 사회는 너무나 혼탁해서 하루라도 빨리 도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될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너져가는 윤리 · 도덕을 바로 잡는 길은 오직 부처님 법의 실천과 포교뿐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이 2천5백년전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일곱걸음을 걸은신 후에 한손은 하늘을 가르키고 한손은 땅을 가르키며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부처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류, 심지어 미물, 곤충, 초목,총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불성(佛性)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 불성 자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첫 사좌후로 "이렇게 거룩한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는 왜 암흑세계에서 헤매고 있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듣고 생각을 돌려서 깨달아라"고 설하셨습니다. 이렇듯 49년간 설하신 부처님의 법문은 구절구절

> 부처님은 첫 사자후로
> "너희는 왜 암흑세계에서
> 헤매고 있느냐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 생각을 돌려서 깨달아라"
> 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 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 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 관 단 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제산제 복용 : 기아 · 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염분 · 자연당 · 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 염불삼매수련 · 선관삼매수련 · 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 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美 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현대인을 위한 선관단식(斷食)
가이드북
을 우송해 드립니다.

회복사례
- 불면증, 우울증, 얼등감 등 신경성 제증상
- 암, 중풍, 협압, 당뇨, 간염, 협심증, 신장병
- 위장병, 변비, 천식, 디스크, 신경통, 폐병
- 축농증, 피부병, 부인병, 성병, 약물중독 외

■ 수련장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 안 내
☎ (0593) 34-1115~6

海東佛教大學
—통신 수강생 모집—

◉ 법사(法師) 과정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하여 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 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 · 운영하실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국제 포교사(國際 布敎師) 과정
승속 · 성별 · 연령 학력 제한 없이 해외포교를 원하시는 분이거나 해외거주 동포로서 불심이 돈독한 분이면 가능.
■ 과목: 영어(필수) · 해당지역언어 · 불교 전반
■ 시간: 매주 火 · 水 · 金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통신도 가능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4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불교 관계 교수님과 석학 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 · 장소에 구애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계하셨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 · 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 · 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시 입학 가능※
문의처 :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10 경한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전화 : 741-0495~6 / 팩스 : 763-4603

海東佛教大學
학 장 장 이 두
대학원장 김 지 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6기 佛教儀式(범음,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업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 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 ○○명
■ 교육기간 : 3개월(각 과정)
■ 구비서류 : 본대학 소정워서 사진 1매
■ 원서접수 : 1995년 10월 1일 ~ 11월 13일
■ 개강일시 : 1995년 11월 13일 오후 5시 정각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에서 종묘방향
구산빌딩 앞 경한빌딩 2층
전화 : 741-0495~6 / 팩스 : 763-4603

海東佛教大學
儀式教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

지 상 법 석

세상이 따뜻해져요"

"욕심 버리고 마음그릇 비워야 '물건'이 담깁니다

그런데도 부처님께 '달라' 소리만 합니다"

계(五戒)를 설해줍니다. 오계는 '산 목숨 죽이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술마시지 마라'는 것으로 이것은 전체 윤리·도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팔관제계를 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또 스님들 비구 250계 비구니계 348계 모두도 '~해라, ~하지마라' 등으로 전체가 윤리성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논장또한 그렇습니다. 〈능엄경〉에 보면 '한 국토에 생(生)하는 자, 한 나라에 태어나는 자, 전체가 동업(同業) 중생이다'했습니다. 동업중생이란 업을 같이 지었기 때문에, 똑같이 한 나라에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동업중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업으로 태어난 우리 중생이 서로 치고 박고 얼굴을 붉혀서 되겠습니까 남북이 가로막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탐장이 높이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각각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남북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능엄경에서는 '동업중생' 화엄경에 "일체중생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일체중생의 숙원하는 바를 따라 베풀어 주는 것이 가히 다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베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험악한 세상을 풍요롭고 따뜻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또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해 중생업이 다하고, 중생번뇌가 다하더라도 나의 원은 다 할 날이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베풀어 주는 이 생각, 허공계 같지 중생업·번뇌가 다 하더라도 내 원이 다 할 날이 없다는 광대무변한 보현보살의 행원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행하려고는 아니하고 욕심 브따리만 안고 있으시겠지요. 욕심을 버리고 텅빈 마음으로 법문을 들어야 제대로 들릴 것입니다. 마음 그릇을 먼저 비워야 물건이 담깁니다.

또다른 예로, 여러분은 모두 보살계를 받았을텐데 경전 구절에 '부모·스승·삼보를 효순하는 법'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부처님이 설하신 〈부모은중경〉에 보면 '나를 낳아 키워 준 부모를 양 어깨에 모시고 수미산을 돌고 돌아 이 몸이 닳아 미진이 될지라도 부모 은덕은 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하니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세상인 것입니다. 가끔 제주도 법회차 그곳에 들렸다가 들었는데 4.5년전부터 노인들을 제주도에 버리고 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효도관광시켜 준다고 제주도로 데리고 가"어머니, 아버지 여기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뭐 마실 것 좀 사 올게요"라고 말하고는 그 길로 내빼, 자기들만 비행기타고 와 버리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만이 아니라 설악산, 지리산, 공원지대마다 노인들을 갖다 내 버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 버리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 보세요.

물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끔 잔소리로 젊은 사람을 귀찮게해서 그렇다고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자식된 도리를 그렇게 저버려서 되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한번 들었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부처님 말씀만이 아니더라도 세계 4대 성인들의 명언을 한번 들었다면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교수가 자기 아버지를 죽여 놓고 허장성세로 곡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과욕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극락을 가고자 하다면 욕심부터 버려라. 성불을 하고자 하면 욕심을 버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절에 오면 법회 시작전이나 끝난후에 엎드려서 빈다는게 '달라' 소리만 합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 입니까.

부처님은 "목숨이 짧은 사람은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면 네 목숨이 길어질 것이다. 병든 자를 구완하면 너 병이 없어지고 건강해질 것이다. 복이 없는 자는 복덕 종자를 심어 베풀어라. 베풀면 온다. 결과의 열매를 스스로 거둔 것이다"고 윤리·도덕의 실천을 말씀 하셨을 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복도 주고, 명도 주고, 모든것을 나눠주리라'처럼 '오너라, 준다'는 요행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2천만 불자는 '달라' 소리 하는 사람만 많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포교를 못한 스님들에게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짧은 실천력에도 그 원인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문을 실천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하는 말이다'라며 지나치지는 않습니까? 설령 그렇다고한들 악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더 많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조금 더 신경써 악한 몇몇 사람을 교화시키면 이 사회는 밝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행하는 사람이 윤리도덕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참다운 불자가 되는 길입니다.

부처님 법에는 발로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드러낼 것을 확 드러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발로참회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살때 집안이 화평하게 됩니다. 하나가 될때 비로소 세상이 확 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상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반조하지 아니하면 경을 아무리 봐도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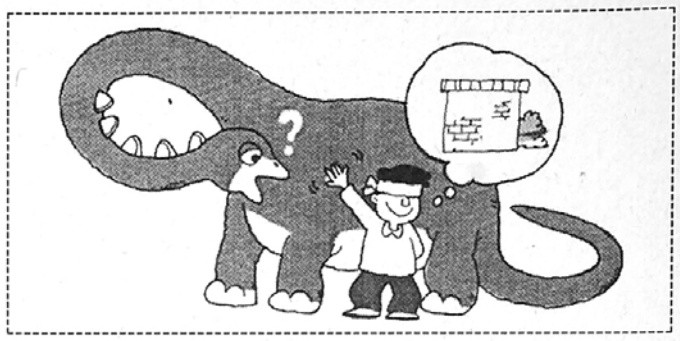
여러분은 이 진리를 실천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 그릇된 세상을 바로 잡을 이는 부처님 밖에 없습니다. 또 부처님 법을 전하는 스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를 부처님 법으로 밝히지 아니하면 영영 이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법문을 듣는 여러분이 모두 하심해서 포교사가 돼 보세요. 하루 아침에 이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른 소리만 하고, 부처님 법을 전달하며 사세요. 그것이 부처님 뜻을 이어 이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밝히는 선구자가 돼야 하고 인도자가 돼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신 것은 그 나름대로 다 뜻이 있어 나셨을테니까요.

'거러지복' 그만 바라고 '보살복' 지어야 참 불자

남의 허물 꾸짖기 전에 자기 잘못 먼저 살펴야

"지금 이 사회를 부처님 법으로
밝히지 아니하면 영영 어두운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모두 하심해서
부처님 법을 전달하며 사세요
하루 아침에 세상이 달라집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43

양 형 진

幻影의 밤하늘 Ⅱ

우리가 흔히 끝없는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주야말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끝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그 우주의 일부를 우리는 밤하늘에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밤하늘의 모습은 무수히 많은 다른 사건들의 영상이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지난 번에 논의하였다.

나에게 지금 그 곳에 있는 것 처럼 나타나는 것들은 사실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그 곳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러나 우주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는 그나마 빛을 발하는 물질에 관한 것이다. 우리 우주에는 우리 눈으로 관측할 수 없는 물질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우선 우주에는 어느 곳에도 널려있는 성간 물질이 있다.

아주 낮은 온도의 성간 물질은 그 자체로 빛을 발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간 물질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천체가 형성된다. 비가시적인 것이 인연이 화합하면 가시적인 것이 되고, 가시적인 것은 인연이 흩어지면 비가시적인 것으로 변한다.

성간물질인 수소 원자를 우리의 시각으로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양자역학에서의 초미세 구조의 갈라짐 때문에 수소 원자는 21.1㎝의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물리학적인 관측은 가능하다.

그러나 우주에는 이러한 물리적 관측마저 불가능한 물질이 있다. 오직 간접적인 추정만이 가능할 뿐, 직접적인 관측이 원리상 불가능한 이러한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주에는 이러한 암흑물질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물질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현대 과학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든 볼 수 없는 것이든 그 모든 대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고 있으니, 시작도 끝도 없는 무시무종의 세계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세계의 전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환영일 뿐이며 진정한 세계의 모습은 무시무종하는 것이어서 오직 연기(緣起)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기반한 좁은 범위에서의 세계에 대한 이해 방식을 보편적인 것으로 확장하는 오류를 아주 쉽게 범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조론이다. 사람이나 여타 생물이 만드는 우리 주변의 물건은 반드시 그 제작자가 있다는 경험을 누구나 하게 된다. 이 경험을 무한히 확장시켜 우주 전체의 창조자를 상정하는 것이 창조론이며, 이는 거의 모든 문화가 공통적으로 범하고 있는 오류이다.

특히 우주 현상의 배후에 절대자가 있지 않고서는 우주 현상이 이토록 조화로울 수 없으리라는 근거없는 논리는 창조론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이는 세계에 대한 환영을 보면서 또 하나의 더 큰 환영을 마음 속에 그려내어,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기꺼이 종속되는 그릇된 견해일 뿐이다. 이는 모든 유위법이 다 마음에 의지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밖을 향하여 어지럽게 구하는 중생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는 세계를 실재하는 세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하나의 환영일 뿐이며, 그나마 볼 수 있는 물질이란 전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무언가 있다는 중생의 잘못된 견해를 타파하기 위하여 일체공을 설하시고, 아무 것도 없다는 중생의 잘못된 견해를 타파하기 위하여 일체 유를 설하시며, 또한 중생이 이 양극단에 집착할까 두려워 중도를 설하신다. 있는 것 같아도 있는 것이 아니며 없는 것 같아도 없는 것이 아니다. 진여실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비유 비무 비비유 비비무(非有 非無 非非有 非非無)이어서 일체법에 중도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우주만물은 인연 화합하며 끝없이 변화

일체를 '있고 없음' 아닌 중도세계로 봐야

가락불교장유종 선원 개원 대법회 및 봉불 점안식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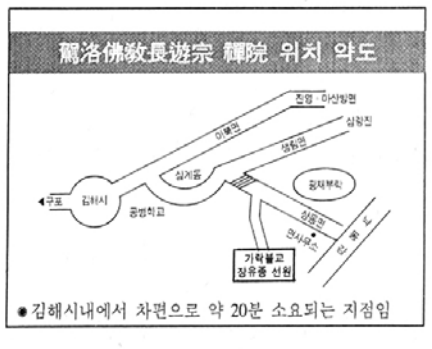
귀의삼보하옵고, 국화향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편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소매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리 사람들은 몇 생을 만나, 서로서로 탁마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가락사의 일부인 가락불교를 복원하기 위하여 영남의 제일명산, 신선이 기유한 성지, 중무산 중원에 서기 1994년 3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대웅전, 장유선사영정각, 장엄보전, 공양청 등 건물네동을 준공하고, 상기와 같이 본 선원 **개원 대법회 및 봉불 점안식**을 봉행코저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두루 참석하시어 무한한 공덕인연을 맺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초청합니다.

아 래

■ **일시 : 서기 1995년 10월 27일(금요일)**
• 봉불점안식 : 오전 10시 • 개원대법회 : 오전 11시
■ **장소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1050-1번지(광재부락)
가락불교장유종 선원(약도 참조)

1995년 10월 일

駕洛佛敎長遊宗 禪院 위치 약도



● 김해시내에서 차편으로 약 20분 소요되는 지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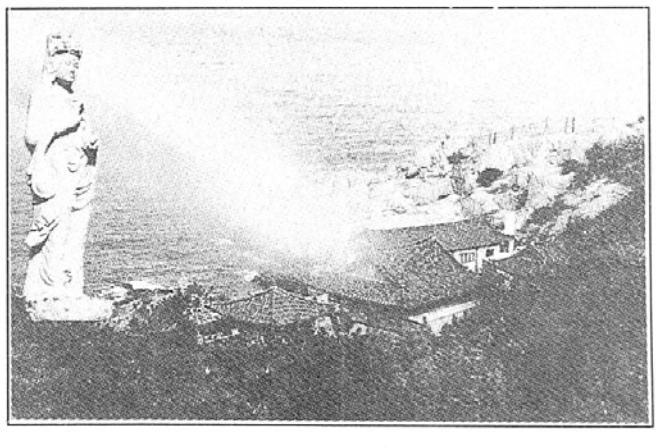
가락불교장유종 선원 창건불사추진위원회
위원장 김 용 채 합장
주 지 김 현 철

* (연결전화) 김해 선원
TEL : **(0525) 23-6174~5**
부산사무소
TEL : **(051) 635-4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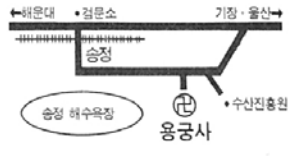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海水觀音 방생도량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바다에 펼쳐진 절경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眞身)이 상주하시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금번 용궁사에서는 **관음대불**을 봉안하옵고 많은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궁사는 특히 삼사순례나 방생법회를 하시는 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하오니
전국의 주지스님과 신도님께서 방문하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무료
대형주차장 완비
방생물 예약 준비해드림
해운대-용궁사 10분 거리



海東龍宮寺 기도영험도량

용궁사 오시는 길 해운대 달맞이길 → 송정 해수욕장 → 용궁사 (051)722-7744, ① 722-7755

고은 불교 대하소설





〈 49 〉

떠도는 사람들

파현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살아 있을까"

물립없이 주낙배를 탄 수원과 함께 그는 배의 고물 쪽의 곡식섬을 살피면서 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배가 떠나는 시각 때문에 몇마디 주고 받으며 의견을 달리하였던 것이다.

"지금 건너가지 않으면 물참때에는 시간이 더 걸리겠네."

"어디 그런 시간이 대수던가. 오랜만에 물에 발을 디딘 마당에 이 포구의 중생들과 함께 숨을 내쉬다가 쉬엄쉬엄 건너가세나."

앞의 의견은 수원의 것이고 뒤는 파현이었다.

수원도 그런 파현을 따르고 싶었으나 위낙 무욕도와 뭍 사이의 물살이 야릇할 때가 많았으므로 그런 물살에 조심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생물도 풍부하고 어느 만큼 갈아먹을 뙈기땅도 있고 게다가 숲이 울창하므로 이런 곳에 사람이 살지 않은채 빈 섬으로 방치된 까닭에는 섬과 뭍 사이의 조류가 자주 이변을 일으켜 연안 어선들에게 곤욕을 치르게 되어서 이기도 하였다.

조선반도 서해안의 연안 해역에는 북으로 압록강 어귀의 용당포 앞바다 황해도 장산곶 인당수 대연평도와 소연평도 사이의 바다 그리고 이곳 무욕도를 내려와 더 남쪽에는 칠산바다의 험한 조류가 저 아래 남녘끝 가거도 앞바다 앞대에까지 골처져 용왕(龍王)에게 불리어가는 어부들이나 수적(水賊)들이 적지 않았다.

실지로 서산땅 돈포에는 한날 한시의 제사가 무려 14가구가 되었다. 그것은 배 세 척이 함께번에 무욕도와 뭍 사이에 들어와서 만선(滿船)의 안도감을 누리는 사이에 그 안도감이 방심으로 되었던지 갑자기 휘감기는 물살에 배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뒤엎어지는 일로 이 배와 저 배에 탄 사람들 후의 일이나 한참 뒤의 일이나를 따질 겨를도 없었거니와 무욕도가 당장 세사람만으로 된 허전함에 예워쌓여 파도소리만 더 커지고 있을 때 행방불명의 파현은 홍성의 조양문(朝陽門) 밖을 혼자 나서고 있었다.

그는 이들 죽의 수원이 앞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이때다하고 물 속으로 몸을 집어넣으며 주낙배 안에 걸쳐있는 돼 굵은 장대에 의해서 재빨리 물살에 따라 북쪽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저 아래 무욕도의 중이다 따위의 말은 전혀 불필요하였다.

파현은 노인의 집에서 며칠동안 있다가 나섰다.

"왜 머리는 박박 깎았소? 그러고보니 옷도 뱃사공의 것이 아니라 뭔 대사(大師—승려)가 입는 것인 즉 어찌 산중의 사람이 바다에서 나타난 것이오?"

"네 청나라에 다녀오는 중이라고 여기시지요"라고 파현은 얼버무렸다.

그는 그곳을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총총히 떠나버렸다.

그래서 홍성 관아를 `슬쩍 피해서 성문밖 노점 가가(假家)에서 찌끄러지 밥과 국으로 끓인 뜬 국밥을 사먹었다. 그의 옷은 어느덧 먹물옷이 아니라 노인이 준 낡은 무명옷이어서 진작 후줄그레하였다.

그가 무심코 입에서 나온 말이 있다.

"수월스님을 따라붙을 일이야."

그보다 훨씬 앞서서 무욕도를 떠나버린 수월이야말로 그동안 파현의 꿈이기도 하였다.

그동안 파현은 지나치게 예언이나 참(讖) 그리고 신이(神異)한 기적과 영험 따위에 골몰하다가 그런 일에 대한 수월의 맹렬한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그는 우녀와 함께 수월의 공격에 손을 들어버렸던 것이다.

"가자 어디든지…이것이 진리를 찾는 일이며 나누는 일이니"

유난스럽게 갈매기들이 많이 떼거리를 지어 날고 있는 밀으로 그는 헤엄쳤던 것이다.

"이렇게 떠나는 길 밖에 없지! 나 파나 겠소하고 인사하고 떠나는 것이야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이런 말을 물에 젖은 몸에도 불구하고 아주 힘차게 내뱉다가 짠물 한 모금을 먹기까지 하였다.

그는 돈포에서 십리 넘는 지경의 개펄에서 몸을 일으켰고 그가 의지했던 장대가 이번에는 발이 푹푹 빠지는 개펄에서 지공이가 되어 주었다.

마을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바닷물을 막아 소규모의 소금을 일구는 중이었다. 이틀 전 그곳 앞바다에서 배 한 척이 가라앉았는데 그 배에 탔던 사람으로 여겨서 노인의 보살핌을 받았다.

"고생이 많으셨소. 이렇게 살아서 다행이오."

라는 위로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 배에 탔던 고기잡이가 아니라, 그래서인지 은연중 한통속이었던 우녀의 뜻에도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그 자신의 새로운 세계를 찾는 일을 마음속에서 진행시켰다.

그러던 중 그는 어느 한군데에서 수행하는 일보다 세상의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여러 경계와 만나 그 자신을 새로 단련시키는 수행이야말로 최선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어쩌면 그가 수원과 함께 임첨지의 시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섬을 떠났던 것도 이러한 뜻을 실현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가자. 어디든지."

"가자. 어디든지… 이것이 진리를 찾는 일이며 진리를 서로 나누는 일이다."

아무튼 파현에게는 진리란 누군가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권위로써의 가치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중생과 나누어먹는 밥이나 물 그리고 공기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내가 한 곳에 처박혀 귀밑에 푸른 이끼가 끼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가자."

"찾아가자… 모든 진리의 땅으로."

하지만 그는 이같은 새로운 선택이 그 자신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닌 사실도 뒤늦게 통감하였다. 그것은 이미 있어야 했던 순례로써의 수행에 그 자신이 동참한 것에 지나지 않는 사실이기도 한 것이었다.

당나라의 비실재적인 선승 한산(寒山)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인답이 즐겨 읊던 것이기도 하였다.

첩첩 바위 밑에 내가 사는데
새나 다니는 곳 인적 끊어져
십년이나 돌아가지 못하니
오던 때 그 길 다 잊어버렸네
(重巖我卜居 鳥道絶人迹
十年歸不得 忘却來時路)

여기서 노래하는 바 '오던 때 그 길 다 잊어버렸네'는 한산이 산중에 오기 전의 속진(俗塵)을 다 벗어났다는 뜻이겠으나 파현의 이단적인 풀이로는 바로 10년전에 잊어버린 그 길이야말로 진리의 길이고 보리의 길이라고 믿는 것이었다.

한산의 시이되 한산의 뜻을 부정하는 시가 되었다.

파현의 입에서 휘파람소리가 났다. 그것은 어떤 태령도 아니라 그저 소리만 내는 것이었다. 음정(音程)을 맞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소리라도 내보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유의 파관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이같은 한산의 오언시(五言詩)가 떠올라 그 시의 내용을 전혀 딴판으로 새겨 그것은 옛 한산의 시가 아니라 오늘 파현의 시로 방금 물에서 건져올린 빛나는 생미역과도 같았다.

三政의 문란이 극에 다달아 민심은 흉흉하였다 떠돌이 파현이 수원 남문밖 객점에서 마당 쓸어주는 일로 한끼밥을 얻어먹을 판으로 청소를 하고있는데 등을 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무작정 길었다. 그 당시에는 이미 한 고장에서 태어난 그대로 먹고 살수 없는 지경이었다. 삼정(三政)의 문란은 극에 다달아 있었고 민심은 군왕이나 사대부의 부침에서 저만치 떨어져 나가 흉흉하였다.

그런 세상이므로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거나 연고지를 등지는 일이 많아졌다.

총각이 마을 처녀를 데리고 달아나는 일이 있었고 나이 지긋한 남정네가 가솔(家率)을 버리고 혼자 집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속환(贖還)의 노과가 집의 안방을 나가 마을 밖의 길바닥에 기어가 죽는 일도 있었다.

이런 세상이었으므로 누구나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이 하나의 현상으로 되었다. '떠나자' '떠나자'가 한밤중의 잠꼬대가 될 정도였다.

파현의 길은 그래서 이런 떠돌이들로 살심하지 않았다. 그들 중의 어떤 축은 서로의 처지를 확인한 뒤 마음을 모아 비산비야의 한양 가는 길속에서 초적을 작당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었다.

한 동행자와의 주고 받는 말에서도 그런 뜻이 서려있었다.

"젠장! 이렇게 집을 나서도 무슨 대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같은 범거자들이야 거지이니면 도둑이 될 밖에요. 거지가 도둑보다 더 어려우니까 도둑이 되는 것이 쉬울 밖에요."

"나와 함께 다른 도둑이 될 생각이 없습니까?"

이것은 파현의 제안이었다.

"무슨 도둑?"

"부처님 법을 도둑질하는 것 말입니다."

"에잇 실성한 사람 같으니라구!"라고 파현의 제안이 여지없이 뭉개졌다.

세상은 온통 집을 떠난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것으로 나날을 보내야 하였다.

어느덧 이같은 떠돌이로 파현이 아산 평택 수원에 이르렀다. 그는 수원 남문 밖의 객점에서 마당을 쓸어주는 일로 한 끼 밥을 얻어먹을 판이었다.

그래서 마당의 평상 밑이나 울바자 언저리의 쓰레기를 얌전하게 청소하고 있는데 등을 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림 · 조향숙

서울 마포구 용강동 50-1 전화 718-0541~4 팩스 713-2403

창작과비평사의 베스트 셀러



장길산
황석영 대하소설
개정판/전10권

『장길산』은 해방 후 남한에서 창작된 수많은 역사소설 가운데 단연 우뚝하다. 역시 그 한계까지도 포함해서 『장길산』은 남한 최고의 역사소설이다.
— 최원식(문학평론가 · 인하대 국문과 교수)

값 각권 6,500원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2
유홍준 지음
값 6500/7000원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지음
값 6500원



소설 禪 1, 2 고은

『소설 선』은 중국의 선종사의 일화를 빠른 속도로 그려내고 있다. 인간내면과 끝없는 우주의 공간을 아우르는 정신의 호탕함도 매력이고, 선의 역사를 관통하는 수많은 기인들의 등장과 해후는 그 자체가 소설적인 사건을 만든다.
— 조선일보 8월 15일자

값 각권 6,500원

청소년 포교지 턱없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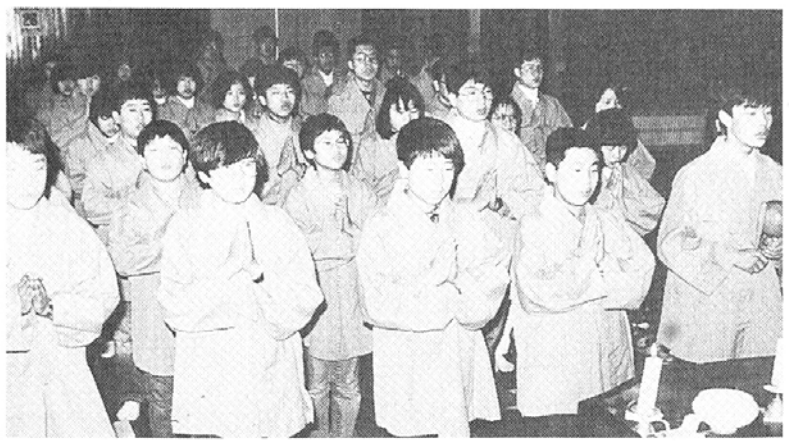
96년 '불교 청소년의 해'

주간 또는 월간등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청소년 전문포교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내년 '불교청소년의 해'를 앞두고 청소년 교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포교의 문제점이 이같이 지적되고 있다.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지는 79년 3월 창간이래 고등학생 불자들을 위한 주간법회 보도지 〈법보〉와 13개 지부 5개 지회로 현재 전국 조직의 청소년교화연합회(이사장 현성스님)가 15만 청소년 회원을 대상으로 펴내고 있는 〈청소년교화보〉가 있다. 또 지난 5일 청소년문서포교회(회장 이지호)가 첫 발간한 〈꿈꾸는 새벽하늘〉등 3개에 불과하다. 이는 20여개에 달하는 불교종립학교의 청소년들마저도 흡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포교지는 청소년 종합포교지라기보다는 회보 및 소식지, 문예지에 가까워 내용면에서 그다지 포교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불교청소년의 해를 앞두고 중·고등학생 대상 포교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년 전문포교지'의 중요성이 교계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다.



'법보' 등 기존 3종 회보·문예지 성격 강해

교화 프로그램 개발…종단등 적극 지원을

청소년포교지	발 행 처	간행기간	연 락 처
법 보	불인당	주 간	0561)761-3407
청소년교화보	청소년교화연합회	계 간	02)735-8165
꿈꾸는 새벽하늘	청소년문서포교회	주 간	053)254-3997
법회와 설법	포교원	월 간	02)720-7060

이같은 현실은 가치관 정립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사업이 나오를 면치 못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밖에도 전문포교지를 만들어 낼 역량있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조직력 미비와 종단이나 사찰의 지원 및 예산확보의 미약, 미래사업에 대한 불자들의 의식부족등도 청소년 포교의 장애 요인이라고 청소년 지도자들은 지적한다.

60년대 이후 청소년포교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어린이 포교는 괄목한만 발전을 해 온 반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화사업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경북 안강읍에서 17년째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포교지 〈법보〉를 매주 발간하고 있는 정완섭법사(전 직교사)는 "학생들을 모으기도 힘들지만 모아 놓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학생들은 무엇으로 교화 받을 것인가는 더욱 중요하다. 그 역할과 청소년 교화 및 수적 확보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게 바로 정예화된 청소년 포교지"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76년 동덕여고 불교학생회를 창립, 현재까지 지도교사를 맡고 있는 김재영법사는 "생활속에 흡수돼 자연스럽게 불자로 교화될 수 있는 쉽고, 포교지다운 포교지가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김법사는 또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식의 기존의 불교포교는 개성이 강한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무리"라며 "이성문제, 학업문제, 시사문제, 영화·음악 등 청소년 관심사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분위기에 젖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청소년 전문포교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매달 발행하고 있는 〈법회와 설법〉의 12월호에 청소년들만의 포교란을 신설해 청소년과 지도자를 위한 법회설법교안 및 문안, 경전근거자료 등을 실어 청소년 포교지로서 시범적으로 각 종립학교에 보급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 자체 제작안과 민간단체 후원 등 포교지 제작상의 지원 형태에 대해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필선 기자

이른 후 건강칼럼

<38>

숙면 유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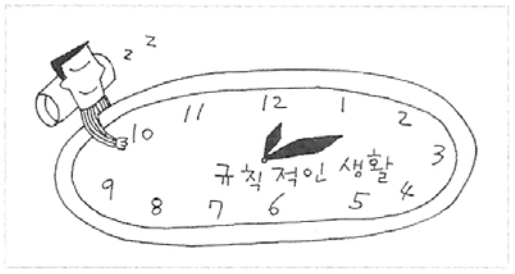
약물의존말고 규칙적인 잠자리 습관 중요

사람이 잠을 못자면 여간 괴롭지 않다. 잠못 이루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비해 잠을 푸근히 재울 수 있는 의학적인 방법은 주로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약물이란 것이 대개 습관성이 있는 약물이라서 여간 주의하지 않으면 혹을 떨려다가 혹을 붙이는 경우가 되고 만다. 이 말은 잠은 약물로 재울수가 있지만 그 결과 그 약이 없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의존성의 노예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어떻게 하면 잠을 만족스럽게 잘수가 있을까? 이런 명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면 아마도 인류에 크나 큰 공헌을 할 수가 있을 것이며 발견자는 떼돈을 벌어 금방 재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잠을 재우는 약물은 작용하는 성질에 따라 대개 3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아주 효과가 빠른 것으로 이는 잠들기가 어려운 사람에게 투여하며 중간정도의 약효가 있는 것은 잠을 자다가 자주 깨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것이고 세번째로는 약효가 오래 지속되는 약물이 있는데 이는 잠이 일찍 깨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우선 약물에 의해 잠을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시도해 보아야할 몇가지 습관을 소개해 본다. 잠자는 규칙적인 습관을 들여보자. 잠을 잘 못이루는 사람들 가운데는 실제의 불면이 있기 보단 스스로 잠을 자지 못하면 어떻게하나 하는 지나친 걱정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걱정에 스스로 최면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에겐 잠의 습관을 규칙적으로 들여보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다.



가령 밤 12시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5시에 일어난다(시간은 스스로 결정)는 식으로 자신이 규칙적인 스케줄을 정하여 그렇게 습관을 들여 본다. 처음 시작하면 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뿐 잠은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인다.

무엇보다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잠도 일정한 주기를 갖는다. 일정한 잠의 주기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 훈련이기 때문에 원상태의 수면리듬이 회복될 때까지 지속한다.

어떤 분들은 잠자리에 들어 숫자를 헤아리는 사람이 있다. 하나 둘 셋…하고 세다가 보면 잠에 들 수가 있다. 금방 잠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적어도 1~2주 이상은 지속해 보아야 한다. 잠이 그래도 안 온다고 자신을 들볶으면 잠은 더 멀리 날라가 버릴 것이다.

스스로에게 걱정 보다는 나도 잠을 잘수가 있다는 최면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행동 수정을 하자면 병행하여 깨어 있을때 스스로의 마음을 담담히 만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갖고 있으면 성공률이 훨씬 높다.

만 화

法句經

* 자신의 장 *
깨끗하고
더러움은
내게 달린 것

이 향 원



서울대 교수, 전북대 총장, 한국철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던 고형곤 박사의 역작!!

增補版
선의 세계
高亨坤 著

제1권
서양철학과 禪
제2권
한국의 禪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성격, 선교일치의 전통을 밝히고 동양문화의 특색을 이룬 선불교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 제3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명저

신국판 양장
1권 380쪽 · 13,000원
2권 330쪽 · 12,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선(禪) 수행의 보고(寶庫)!
지관선(止觀禪)의 집대성!

摩訶止觀
大止觀坐禪法
대지관좌선법
전5권

천태대사의 〈마하지관〉 드디어 현대어로 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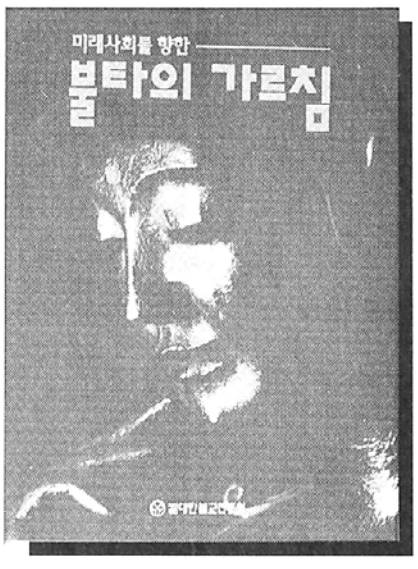
〈마하지관〉은 천태대사가 선수행의 방편을 자신의 수행 경험과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다. 지관법(止觀法)은 석가세존이 깨달음을 얻으신 방편인 동시에 석가세존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고 풍부하게 된 수행방법이다.

天台智者 大師 述
空綠 金無得 註釋

신국판/값 각권 8,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이 시대의 참다운 불교결집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은 국내 40여 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근본불교의 『결집』 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현대사회의 제문제를 불교적 시각으로 분석,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을 생생한 삶의 지침으로 승화시킨 대중불교 『결집』입니다.

■구성:제1장 불교란 무엇인가
1. 불교의 본질 2. 불교의 역사와 발달
3. 오늘의 세계와 불교

제2장 불교와 현대사회
1. 가정 2. 현대사회와 교육
3. 환경과 생명 4. 미래의 불가
5. 노동 6. 일상생활
7. 사회윤리 8. 복지
9. 과학 10. 사회와 국가
11. 문화 12. 정보통신
13. 미래사회 14. 타종교에 대하여

제3장 불자의 신행
1. 무엇을 믿을 것인가? (佛寶)
2. 어떻게 닦을 것인가? (法寶)
3. 불자의 자세 (僧寶)

●사양:4×6배판, 606p, 양장제본
●정가:20,000원
●발행: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02)719-2606
●보급:도서출판 대원사 (02)757-6717

신행지침서 '365일 부처님과 함께' 등

불자다운 삶 이끄는 "등대"

경전구절 · 어록등 소개 … 매일 부처님 말씀 되새겨

불자들의 생활은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행위이다. 생활이 곧 신행이며, 만나는 사람, 부딪치는 일이 모두 보살이며 선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이 생활의 첫 출발이다.

이렇게 불자다운 생활을 할 수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이 있다. 〈365일 부처님과 함께〉〈신행 365일〉〈삼백육십오 번뇌〉 등으로, 이들 책은 모두 매일 또는 특별한 날과 절기에 따라 그에 알맞는 경전구절 또는 조사들의 어록을 소개하고, 매일 매일의 올바른 생활자세와 마음가짐을 법문과 수상문으로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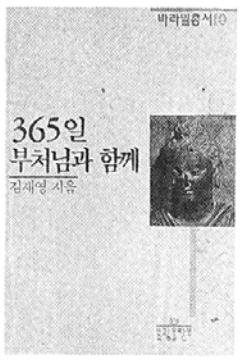
〈365일 부처님과 함께〉(김재경, 불광출판부)는 법화경 아함경등의 경전 구절을 인용, 생활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매월을 희망 나눔 구도 등의 그달의 주제로 나눠 거기에 합당한 얘기를 풀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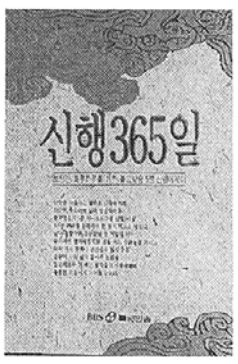
불교방송에서 펴낸 〈신행 365일〉(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시간에 탤런트 김용림씨의 잔잔한 목소리에 실려 방송된 원고를 책으로 엮은 신행에세이.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봄직한 주제들을 불교설화나 경전 속의 일화를 곁들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음미해볼 수 있도록 꾸몄다.

지관스님이 펴낸 〈신행 365일〉(동국역경원 펴냄)은 대장경과 역대조사의 어록 가운데서 365개항을 뽑아 신행생활을 돕는 해설을 덧붙이고 원문과 출전을 밝혀 자세한 공부로 이끌고 있다. 지관스님은 이 책의 서문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게 하는 힘은 올바른 믿음에서 나온다"며 "불교인은 물론 일반인의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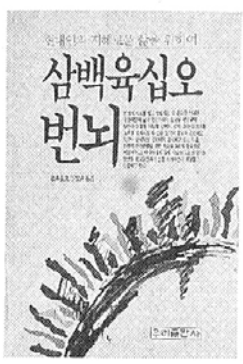
〈삼백육십오 번뇌〉(마쯔나미 고도우, 우리출판사)도 신행지침으로 삼을만한 경전구절과 조사어록을 365개 항목으로 배열, 내용소개과 함께 해설을 덧붙였다. 1日 1訓으로 삼을 수 있는 불교명언을 모아 매일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던져주고 있다.

이들 책은 경전읽기의 생활화와 부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칫 딱딱하게 여겨지는 경전의 가르침을 쉬운 비유를 들어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시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점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자들의 신행지침서로 읽힌다.









◇매일 한가지 주제를 경전과 조사어록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어 신행지침서로 읽어볼만 하다.

정성운 기자

존재·사유 심층 고찰

'선의 세계' 증보 발간



◇고형곤 박사

원로철학자 고형곤 박사(학술원회원)가 최근 지난 71년 출간된 〈선의 세계〉에 '추사와 백파' '화엄신론연구'등 그 이후 발표한 논문들을 추가하여 전2권으로 증보판을 펴냈다.(운주사)

1권 '서양철학과 선'에서는 선과 하이데거의 존재론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3의 새로운 경지, 즉 존재와 사유의 일치라는 저자의 철학적 목표를 밝히고 있다. 2권 '한국의 선'은 '해동조계종의 연원및 그 조류' '화엄신론연구' '추사의 선과백파망증 15조'로 구성했다. 특히 추사가 백파스님의 선관에 비판의 글을 보낸 내용에 대한 저자의 통렬한 논박이 관심을 모은다.

명사추천 불서 100선

'벽암록'



김 윤 환
〈부산 영광도서 대표〉

독서의 계절이다. 하늘 맑고 말이 살찌는 계절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그 가운데 한권의 책을 머리맡에 두고 일생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더할나위 없이 값진 삶일 것이다.

여기 추천하는 벽암록은 하늘 드높은 계절에 딱 알맞는 책이라 할 수 있다 하겠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선(禪)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 문화적 향상과 진보의 촉진제이고, 자극제이며 자양강장제라 하겠다.

불교는 동양정신의 정수로서, 인류 최대의 큰 계보요, 문화적 가치를 무한히 간직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선은 영구히 가슴을 채워주는 우주의 진리라 할 수 있다. 보리달마를 통하여 중국에 전래하여 우리나라 및 일본에 전파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 사상 생활의 보품에 이르기까지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벽암록은 설두스님이 자 취미스님은 선판(禪板)을 가지고 오게 한다음 그 선판으로 용아스님을 갈겼다. 얼마든지 때리는 것은 좋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가 뛰쳐나올리 없지 않느냐고 그 길로 바릿대를 메고 임제스님에게 찾아가 전과 같이 물었다. 그러자 임제스님은 용아스님의 물음에는 들은척도 하지 않고 좌선할 때 쓰는 원형의 좌포를 가져오게 하고서는 그 좌포로 또 때렸다. 용아스님은 얻어맞으면서, 때리는 것은 얼마 든지 좋으나 때리는데서 조사서래의는 뛰쳐나오지 않는다. 속히 조사서래의의 회답을 듣고 싶다고 말하였다.

어느날 조주스님이 투자(投子)스님에게,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돌연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자, 투자스님은 밤에 다시 살아난 죽은 사람이라면 유령일지도 모른다. 유령을 판별하자면 밤에 해서는 안되니 날이 밝은 다음날 행하여 정체를 아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조주대사저(趙州大死底)로 유명한 대목이다.

이러한 선문답은 우리가 망각하였던 정신세계를 단순한 한마디로 훈연히 크게 열어준다. 벽암록이 젊은이들을 위해 알기쉽게 새롭게 장정돼 나와 독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선문답 · 逸事등 1백 공안 모아

풍자적 단평 · 비평적 주해 '눈길'

선적(禪的)내용 설화 일사(逸事)를 100문제로 모아 이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운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였고, 원오스님은 산문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원오스님은 영천원의 방장실, 즉 벽암실에서 '설두백칙송고(雪竇百則頌古)'를 애송하고, 자신의 선기(禪機)와 문장을 활용하여 설두스님이 선택해 놓은 일백가지의 공안(公案) 머리에 결론적 비평을 쓰고, 공안과 송고와의 각구에는 풍자적 단평을 내리고, 다시 그 공안과 송고와의 비평적 주해를 덧붙였다. 말하자면 벽암실에서 쓴 선(禪)의 비평서라 하겠다.

어느날 용아스님이 취미스님에게 달마는 대체 무엇하러 중국에 왔을까요. 9년이나 면벽하여 엉덩이가 짝을 지경이 되어가지고는 아무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소설 등신불	석용산	문학수첩
2	천수경	무비	불일
3	불타의 가르침	이기영	진흥원
4	선 100문100답	진제	파란나라
5	인식론·논리학	사이구서 미쓰요시	불교시대사
6	깨달음의 길	거해	담마간다
7	방한암선사	김호성	민족사
8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	효림
9	알기쉬운 불교	편성부	불교방송
10	영가천혼 법어	석성우	토방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국역해심밀경(김천룡 역)=유식학의 근본경전인 해심밀경 완역본. 인간의 정신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8식사상과 유식학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책이다. 텍스트는 당나라 현장법사의 한역본. 〈보련각, 3만5천원〉

▲마하반야바라밀경(이동형 역)=부처님과 문수보살이 직접 설한 마하반야바라밀경 가운데 서분과 정종분 유통분을 우리말로 옮겼다. 반야부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실상반야를 밝히고 있다. 〈대흥기획, 3천원〉

▲티벳 사자의 서(파드마삼바바 지음)=티벳 최고의 경전으로 불리는 '티벳 사자의 서' 완역판. 사후세계를 경험한 다음 환생한 라마승들의 증언에 근거하여 사후의 영혼이 겪게 되는 여러 현상을 설명하고 해탈에 이르는 방법을 담고 있다. 류시화 옮김. 〈정신세계사, 1만2천원〉

▲이뭣꼬(강창구 지음)=구도와 구법을 향한 정진의 과정에서 건져올린 '큰스님' '봉암사에 와서' 등 28편의 시를 모은 구도시집. 불상과 사찰전경 등의 이미지 사진을 곁들였다. 〈도솔, 4천5백원〉

마음이 열리면 천당도 보이지요 — 지원 지음

삶에 대한 성찰담은 서간문집



서울 삼보사 주지소임을 보면서 일선 포교현장을 일구고 있는 지원스님이 한때 설악산 신흥사에 머물며 '달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바이와 주고받은 편지글을 모은 서간문집.

〈마음이 열리면 천당도 보이지요〉에는 불교에 대한 의문과 회의 환희심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담담한 문체에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다. 개인적 정감이 담긴 편지글의 형식을 빌어 불교의 요체를 설한 반야심경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흥미롭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형식의 불교입문서라 부를만 하다.

지은이는 "설악을 떠난 지 오래고 그네도 행복의 보금자리를 찾아갔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못내 아쉬워지는 것이 정(情)인가 봅니다"라는 말로 출판동기를 밝혔다. 편지글과 함께 53편의 시도 함께 묶었다. 〈삼보, 6천원〉

사찰의 벽화이야기 — 권영한 지음

벽화에 담긴 신앙적의미 살펴



사찰에 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찰의 벽화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금증을 풀지못한 채 지나쳐 버리고 만다.

사찰을 장식하는 장엄용으로 오래 전부터 그려져온 사찰벽화는 불교의 신앙 및 깨달음, 교리, 고승들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찰의 벽화이야기〉는 저자가 20여년 전국의 사찰을 직접 찾아 촬영한 3백여장의 원색사진을 곁들여 벽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석가모니 일대기' '고승과 선사' 등 12장으로 구성해 각 벽화가 담고있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벽화이야기를 통해 불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꾸민 것이 특징이다. 〈전원문화사, 1만원〉

한국의 멋 맛 소리 — 최성자 지음

전통문화 가치 쉽고 깊게 접근



우리의 전통문화란 무엇인가. 새삼스럽기까지 한 질문이지만 답변이 결코 수월치 않다. 전통문화를 글과 논리에 가둬 어렵게만 설명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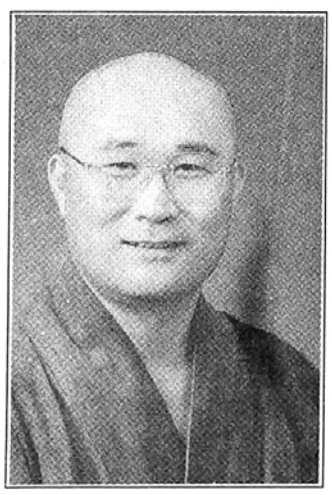
〈한국의 멋 맛 소리〉는 위의 질문에 '…이다' 식으로 응수하지 않는다. 문화재 전문기자의 발품과 전통문화에 대한 큰 애정으로 한국의 멋과 맛과 소리의 아름다움으로 이끄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

특히 국보급만이 아니라 하찮게 생각되는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도 미처 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끄집어내고 그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준다.

이 책은 멋 맛 소리 3장으로 구성, 불교관계의 유물과 유적을 비롯 먹거리와 맛, 소리, 문화인, 이색박물관 등 전통문화와 관계깊은 주제들을 간결하고 단아한 문장으로 폭넓게 다루고 있다. 〈혜안, 8천3백원〉

마음이 열리면
天堂도 보이지요.

시인 윤지원 스님이 산문 밖 우바이에게 보내는 산사의 편지



情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오랜 세월과 더불어 많은 사연을 동반하게 됩니다.
누구나 곡진한 사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살듯이.
구름을 벗하고 산에 깃들어 사는 수행자에게도 닦아도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情이란 것이 있지요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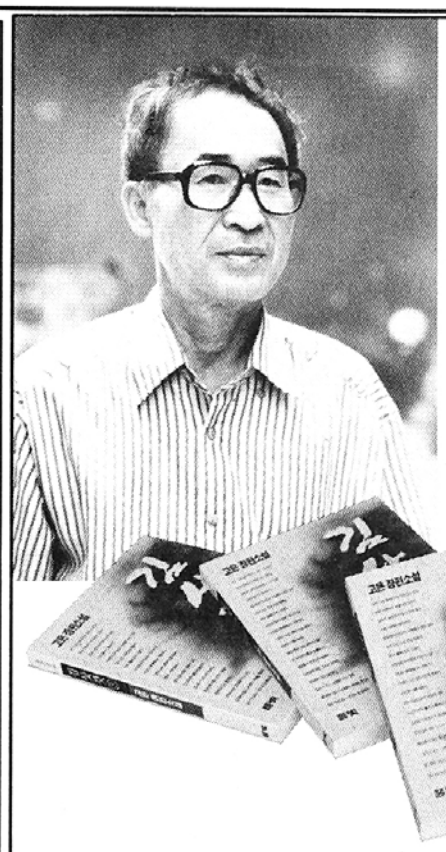
산문 밖 우바이로부터 거듭되는 서신을 받고 출가 승려로서 인간적 사랑과 그리움, 연민, 고독과 고뇌, 번민, 원망,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추억, 깨달음, 현실과 영원 등을 묻고 진솔하게 답한 내용들이다.
산사의 골 깊은 운치와 서정어린 문체로 아름답고 평안한 마음을 열어주는 지혜의 보고이다. 지금 전국 서점서 절찬리 판매 중!

신국판 / 300쪽 / 값 6,000원

서울시 은평구 역촌1동 17-12
전화 : 02) 352-6406~7
팩스 : 02) 389-3262

도서출판 삼보

도서총판 운주사
전화 : 02) 720-9372~3
팩스 : 02) 723-0646



고은장편소설

시가 죽으면 시인이 살아나고
시인이 죽으면 시가 살아난다.
대시인 고은 선생이 바라보는 파운(破韻)의 농시(弄詩),
김삿갓의 시 세계와 방랑

내가 가장 놀라워하는 것은 김삿갓의 방랑 자체이다.
방랑이란 그것의 실질은 낭만적이기보다
아주 힘든 노동으로서의 행위이다.
방랑정신이야말로 사람들의 심성 안에 잠겨 있는
오랜 현실 탈출의 향수(鄕愁)인지 모른다.
방랑정신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무상성(無償性)의 구현이다.
—'작가의 말' 중에서

①②③ 각권 값 6,500원

김삿갓 ①②③

풀빛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3동 176-87 능인빌딩 3층
전화 363-6972, 363-5995 팩스 393-3858

만해스님 詩 음반에 담는다

"스님의 종교관·사상 구어사용 생생히 전달"
성우 이정구씨 녹음 '낭송시전집' 연말 출시

만해스님의 시어들을 귀로 읽게 됐다.

만해스님의 유작 88편의 시 전부를 10개의 테이프에 담은 '만해 한용운 낭송시 전집'이 제작, 그 1집이 출시됐다.

올 연말 본격적으로 선보일 '만해 한용운 낭송시 전집'은 수창음반(대표 최길순)이 총기획, 제작하고 〈다이하드 시리즈〉의 브루스윌리스 목소리로 유명한 정상급 성우 이정구씨의 음성으로 녹음됐다. 또 낭송시 전집은 만해사상연구회 전보삼회장(신구전문대 교수)이 고증했다.

이번 시낭송 테이프는 현대어가 아닌 구어(만해스님 표기에 따라)를 그대로 살려 제작된다는게 큰 특징.

당시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만해스님이 표현하고자 했던 사상을 운치있게 살려 요즘 사람들로 하여금 고스란히 가슴깊이 되새기게 한다.

이번 테이프는 또 음악 위주의 시낭송 테이프로 자칫 오인되기도 하는 기존의 시낭송 테이프의 한계를 감안, '시를 위한 시' 즉 시 자체의 언어로 청취자와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10여년전 경봉스님의 법어를 테이프로 제작한 것을 시작으로 천제스님, 경우스님의 설법을 담아 음반계에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최길순사장은 이번 시낭송테이프 제작은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셨고 조국을 사랑하셨던 스님의 종교관과 사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불자로 교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하는 불자된 입장에서의 욕심이었죠"라며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성우 이정구씨는 독실한 불교신자인 어머니의 기대 때문인지 "많은 시를 낭송하고 녹음을 해봤지만 이번처럼 어깨가 무거운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만해스님이 생전에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깊은 뜻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만해 한용운 낭송시' 테이프는 지난 20일부터 열리고 있는 책방 여시아문의 〈님의 침묵〉 판본 전시회를 위해 1집만 우선 제작돼 전시장에서 선보이고 있다.

도필선 기자



◇만해스님 시낭송 테이프 1집.

BBS 드라마 '불교설화' 테이프로 제작 시판



재미있는 불교설화를 테이프로 듣는다.

불교방송이 입체낭독 드라마 '불교설화'(매주 일요일 오후4시5분~50분)를 8개의 오디오 테이프에 담아 시판한다. 유명사찰과 성지에 깃든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현장감 있는 드라마로 엮었다.

수록된 설화는 △산방산의 꽃비(거제 보현암과 삼신석굴) △삼화령 애기부처님(경주 남산) △검단리의 보은염(고창 선운사) △홍장아씨와 성덕아씨가 세운 절(곡성 관음사) △욱면이의 극락왕생(진주 미타사) △소란야에 계신 나반존자(삼각산 삼성암) △호암자 스님과 선암사(승주 선암사) △도편수의 첫사랑(강화 전등사).

'불교음악 작곡집' 출반
김회경씨 27일 기념콘서트


◇김회경씨

불교음악작곡가 김회경씨의 '불교음악 작곡집'이 출반됐다.

사찰합창단 지휘, 신곡발표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젊은 작곡가 김회경씨는 이번 음반에 찬불가곡, 찬불가요, 찬불국악가요, 찬불동요, 찬불가 등 각기 다른 색깔의 음악들을 다양하게 수록했다. 태광산업의 지원으로 제작된 김씨의 '불교음악 작곡집'은 보다 현대적이고 생활화 될 수 있는 찬불가의 영역에 대한 자리매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음반의 출반을 기념하는 콘서트는 오는 27일 오후7시 동숭아트홀(745-4548)에서 열린다. 음반 출반기념식에 이은 콘서트에서는 수록된 음악들이 공연될 예정이다. 이번 출반 기념공연은 구로 관음포교원(주지 일명)이 마련한다.

해인사 성보박물관 연말착공
60억 투입 연건평 2천평 규모…97년 완공

해인사와 경남가야문화권의 불교문화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된다.

해인사(주지 지관)와 합천군은 지난 18일 해인사 성보박물관 공사를 올 연말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97년 완공될 해인사 성보박물관은 전국 본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해인사 일주문 주변 5천여평 부지에 연건평 2천평 규모로 설립될 해인사 성보박물관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설계됐다.

이 박물관에는 해인사 본말사가 소장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와 가야시대 유물 등 모두 1만여점이 영구 보존된다. 따라서 이 지역 문화재를 시대별 종류별로 나눠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국비 35억원 도·군비 15억원 해인사 부담금 10억원 등 모두 60억원을 들여 설립될 해인사 성보박물관은 이 지역 불교사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부대시설도 갖추게 된다.

해인사와 합천군은 그간 산재된 지역문화유물의 합리적인 관리와 사찰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해 대규모 성보박물관 건립 계획을 세워 왔었다.

종교화합 음악무대 열린다
95 종교음악제 내달 2일 국립극장서

음악을 통한 종교간의 화합과 문화교류의 마당을 넓혀가는 95종교음악제가 내달 2일 오후7시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불교·평화·기독교방송이 공동 주최하고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하는 올 종교음악제에는 불교계의 불교방송 어머니합창단(108명), 가톨릭측의 가톨릭연합합창단(80명), 기독교측의 바흐합창단(80명)이 참가한다.

출연하는 합창단은 각 종교의 성가들을 중심으로 25분씩 공연을 한다. 또 세 종교의 출연 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도 '한 송이 흰 백합화' '사공의 노래' '울산아가씨' '총각타령' 등을 연주할 계획이다.

김동환교수(한양대)가 지휘하는 불교방송 어머니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빈손' '오계의 노래' '그리운 부처님이시여' 등 8곡을 부른다.

세 종교의 방송사가 매년 순번제로 추진해온 종교음악제는 올해 불교방송(담당·구경모 PD)에 의해 기획됐다.


◇김홍도의 '노승염불'.

진경시대 인물화전
29일 간송미술관서 열려

조선후기 인물화 명품을 만날 수 있는 '진경시대 인물화전'이 간송미술관에서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진경시대 인물화란 조선후기 우리나라 산수의 아름다움을 그리던 진경산수화가 발전할 때 우리나라 사람의 모습을 화폭에 옮긴 그림.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사람의 모습을 한 달마대사가 꺾은 갈대가지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그린 단원 김홍도의 '절로도해'와 '남해관음' '노승염불' 등을 비롯해 겸재 정선, 혜원 신윤복 등 21명의 작품 60여점이 선보이고 있다.

한국복식 2천년전
장삼등 4백여점 전시

'한국복식 2천년전'이 지난 18일부터 국립민속박물관 중앙홀에서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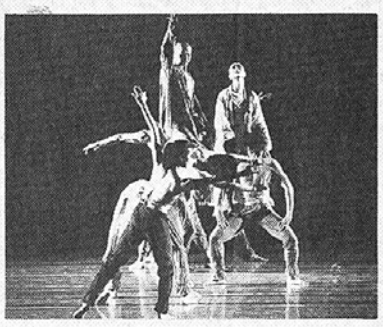
이번 특별전은 우리 복식문화의 전통과 참모습을 살펴, 세계속에 한국 고유의 복식문화를 알리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화장구 장신구 의복 신발 등 4백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89년 전통공예대전에서 입상한 강계월씨의 가사, 장삼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정판수씨 부처님상등
국제 빵·과자전 출품

대한제과협회가 개최하는 제7회 서울국제 빵·과자전이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삼성동 무역전시관 대서양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정판수씨 등이 제작한 부처님상, 달마상 등이 출품된다.


◇지난 8,9일 광주비엔날레에서 김복희무용단이 현대무용으로 첫선을 보인 이광수 소설 '꿈'.

'꿈, 탐욕이 그리는 그림' 내달 4일 태국서 공연
김복희무용단, 소설 '꿈' 현대무용화

김복희교수(한양대 무용과)가 이끄는 현대무용단이 태국 제왕즉위 50주년 기념 페스티발에서 이광수 원작 소설 〈꿈〉을 현대무용으로 창작한 '꿈, 탐욕이 그리는 그림'을 공연한다.

오는 11월 4~10일까지 태국 타일랜드문화회관에서 공연될 '꿈, 탐욕이 그리는 그림'은 조신대사가 꿈을 통해 달례라는 아름다운 여인의 본능적 요소들에서 벗어나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는 내용으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달례와 조신이 만나는 현실이 꿈으로, 꿈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꿈의 이중주' 형식의 특이한 구조로 구성돼 새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 불교를 통해 우리 문화의 뿌리에 접근하고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한국적 정서를 '춤'으로 형상화 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안무가 김복희씨는 71년 '우리정신을 바탕으로한 현대무용의 창작'이라는 의지를 선언한 후 87년 '흙으로 빚은 사리의 나들이', 88년 '요석 신라의 외출', 89년 '뒤로 돌아 이 소리를', 92년 '아홉개의 의문 그리고…' 등 불교무용을 창작해왔다.

전통한지 예술전
23~27일 부산BBS 주최

불교부산방송(사장 류진수)은 10월23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국제문화센터 전시실에서 '95 전통한지 예술전'을 개최한다.

삼국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온 전통의상 약 70여점을 한지(닥나무 종이)로 재현하는 이번 행사에는 특히 조계종 전종정 성철스님이 생전에 입었던 누더기 두루마기를 한지의상으로 재현하고 아울러 극락에서 입고 계실 상상 의상을 김경(함매제 대표)씨의 작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경씨 외 이신우(패션 디자이너), 김정신(한남대 의류학과 교수), 허정선(한양여전 교수), 김지은(한국복장학원 원장), 이대원성 보살 등의 작품이 출품되고 있다.

◇기사넘쳐 '불심시심' 쉽니다.

문화재단신

내년 '이달의 문화인물' 도선스님등 12명 선정


◇경주 남산 장창골(長倉谷)에서 발견된 돌미륵삼존불 중 협시보살상.

문체부는 지난 17일 내년 '이달의 문화인물'을 선정 발표했다.

문학의 해를 여는 1월의 문화인물에는 '구운몽'의 작가 김만중이 선정됐다. 2월:최치원(신라·학자) 3월:여순지(조선·과학자) 4월:서재필(독립신문 창간) 5월: 김명국(조선·화가) 6월:유한일(근대·유한양행 창업) 7월:도선스님(신라승려) 8월:심훈(소설가) 9월:왕산악(고구려·거문고명인) 10월: 정인승(국어학자) 11월:전형필(문화재 수집가) 12월: 이제마(조선·한의학자).

경주남산 출토 유물 '한눈에'
금동불상등 2백50여점 내달 19일까지 전시

신라불교의 성지 경주 남산에서 출토된 유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주 남산' 특별전시회가 국립경주박물관 안 압지관에서 지난 17일 열려 11월19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특별전의 전시물은 1백22곳에 이르는 절터에서 출토된 범종, 금동불, 멍문기와 등 유물 1백20점을 비롯해 석불 10여점, 삐항아리 15점, 신라토기 등 고분출토유물 35점 등 모두 2백50여점이다.

또 지난해 발견된 남산신성비 제9비, 천은사터에서 나온 고려시대의 범종과 청자류, 창림사터에서 발견된 법화경석 등이 일반에 처음 선봬 특별전을 빛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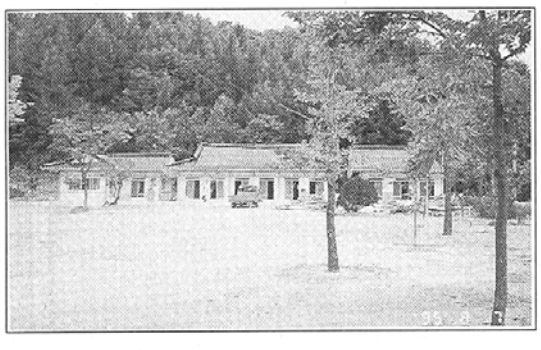
함께 전시되는 남산 복원모형(1/1300 축소)은 영상안내 시스템으로 마애여래상, 관세음보살상, 아미타삼존불, 마애좌불 등 수많은 불교유적이 골짜기마다 즐비해 있음을 보여준다.

고속철도가 경주를 통과할 경우 노선이 건교부가 설계한 도심노선이든, 문체부가 요구한 외곽노선이든 모두 남산 바로 옆을 지난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특별전은 경주노선 재검토의 목소리를 웅변해 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내다봤다.

하치우마 기증 문화재展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9월 일본의 개인소장가인 하치우마 다타스(八馬 理)씨가 기증한 통일신라 금동여래좌상 등 유물 3백83점을 한자리에 모은 '하치우마 다타스 기증문화재 특별전'을 지난 24일부터 11월19일까지 4층 일본실에서 개최하고있다. (02)720-2714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을 찾고 계십니까?



정토원은 조용하고 아늑한 산속에 자리한 사원(寺院)입니다.

최적의 자연환경과 현대시설은 심신의 건강을 되찾게 할 것입니다.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불광산 정토원

회비 1주일에 100,000원, 한달에 300,000원

교통 1. 기차 : 청량리역출발→양동역 하차(정토원까지 택시로 10분)
오전 6시 50분 낮 12시(통일호)
오후 1시 (무궁화호)
3시 (통일호)

2. 자가용이용 : 서울→여주(1시간)→북내면소재지(7분)→주암삼거리(10분)→양동(10분)→쌍학주유소→불광산정토원(3분)

문의전화 서울 238-3285 (금강정사)

사람을 구합니다

공기맑고 조용한 산속의 사찰(절)에서 수양하시며 평생 사실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신 55세에서 60세 사이의 부부나 할머니 두분을 원합니다.

사실곳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불광산 정토원
월급여 : 침식제공 500,000원
종 교 : 불교인이거나 없어도 됨

연락전화 : 서울 02. 238-3285
233-2500 금강정사포교원
0338. 71-8210 정토원

불교 정보 95년도 신판 발간
(불기 2539년-1995년-가을호)

불교계의 자료집으로 제작·보급되는 불교정보는 불교계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다 정확하고 알차게 갖추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후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 기재된 내용
1) 불교 종단의 임원 및 주소, 전화번호, 역사 등
2) 사찰의 건립 및 중창 역사, 주소, 전화번호, 현존 문화재, 소속종단, 조실 및 현 주지 등
3) 전통사찰에 전해 오는 설화와 사찰 기록
4) 사찰과 포교당의 법회, 위치 및 교통편 안내
5) 불교계 언론 및 잡지사, 출판사, 불교용품 전문점 등
6) 불교계 각종 학교, 신도회 및 일반 신행회 안내
7) 사찰과 신행회는 각 시도별로 가나다 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면 개정판에 기재하겠습니다.
※ 불교정보 1권당 1만원입니다.
※ 책 대금을 다음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시면 접수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053-12-023151 서울신탁은행 15501-2537606
외환은행 150-13-11760-5 체신부(우체국) 011965-0066025
국민은행 832-24-0006-924 조흥은행 390-04-164932

예금주 : 이성호

도서출판 다모다
☎ 02-725-6000

직지사 '수행·전법도량' 새단장

19일 30년중창불사 회향 2만 사부대중 동참
성보박물관 개관 보물급 문화재등 86점 전시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녹원) 30년중창불사 회향 법요식이 지난 19일 만덕전 앞 잔디광장에서 2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만등탑이 점등된 가운데 청의동자와 홍의동녀의 육법공양의식으로 시작된 법요식에서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은 석주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직지사는 세계의 도량으로 새단장해 인류의 평화를 실현시키는 중심이 될 것"이라고 30년불사를 치하했다. 이에앞서 녹원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직지사는 수행·교육·전법도량의 사명을 다할 것이며 오늘의 불사회향공덕은 2천만불자와 역사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과 송석구 동국대총장 각 정당의 대표, 일본 스리랑카등 해외 고승들이 축사를 했다.

이날 회향법요식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직지사 성보박물관(관장 이양길)도 개관돼 일반에 직지사 본말사 소장 성보들이 공개됐다. 강원으로 쓰이던 청풍료를 새로 단장한 99평규모의 성보 박물관에는 금동사리함(국보 제208호), 석조약사여래좌상(보물 제319호), 금동자물쇠 6점(보물 제1141호)등 86점의 성보가 전시됐다. 직지사는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 2백80여점의 성보도 분기별로 순환 전시해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 직지사는 30년중창불사 회향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도 17일 오후2시 설법전에서 개최했다.

'신라불교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에서 민병천 교수(전 동국대총장)는 '신라통일과 남북통일에 대한 불교의 역할'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민교수는 "법화경과 화엄경에서 평화통일의 원리를 찾을 수 있고 의상과 원효의 사상에서 통일이념과 실천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상현교수(교원대)와 정병조교수(동국대)도 '신라불교 초전의 제문제' '신라고승들의 사상과 그 시대적 역할'을 통해 신라불교의 가치와 현대적 이해의 과제들을 강조했다. 이어 종범스님(중앙승가대교수) 목정배교수(동국대) 서윤길교수(동국대) 윤이흠교수(서울대)가 토론에 나서 신라불교의 계승문제를 깊이있게 짚었다.

교구본사에서는 처음으로 환경보호 실천단체로 창립된 직지사 환경보호회(회장 유영석)가 주관한 산사의 환경음악회는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부터 극락전 앞뜰에서 열렸다.

김천=이윤호 기자



◇직지사 30년중창불사 회향법요식이 지난 19일 거행됐다.

btn·BBS 제작비 '뒷걸음'

기획물 엄두 못내…질적 저하 우려
구조개선 통해 과감투자 대책 절실

불교방송과 불교TV의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방송내용의 질적저하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달초 뒤늦은 가을개편을 단행할 계획인 불교방송의 경우 기존의 제작비에서 1천8백여만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이번 개편에서도 획기적인 프로그램의 등장은 힘들 것이란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불교TV의 경우도 지난 가을개편때 긴축재정 방침에 따라 새프로보다는 기존 프로의 조정 형식을 취했었다.

두 방송사의 월간 프로그램 제작비 규모는 BBS의 경우 8천2백만원선, btn의 경우 1억8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모는 타방송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란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개편을 앞둔 불교방송의 제작비 삭감 방침은 개국초기 1억을 넘던 투자규모와 크게 대조된다. 거기다 조만간 광고공사가 폐지될 것이란 예측이 방송가에 정설로 인식되고 있어 불교방송의 제작비 뒷걸음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제작비의 삭감방침은 방송의 내용을 빈약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선 제작자들의 우려다. 제작비의 축소는 담당PD등 제작진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기저하, 전문방송인 인기인 섭외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교방송의 한 프로는 PD 1명이 연출 효과 음악을 다 감당해야 하고 출연자도 '단역'내지 '비인기인'으로 섭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btn의 경우도 애초의 다큐멘터리 기획물을 강의나 대담형식으로 대치하는 등 제작방향을 재정에 맞추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포교방송의 제작비 투자 저하 원인은 방송사가 갖는 재정구조의 열악성에 있다. 때문에 각종 사업을 통한 재정확충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으나 아직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불교방송의 프로그램후원회가 '불국토의 아침'등 4개 프로에 일정부분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또한 감소추세임을 감안해 제작비를 낮춰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는것. 따라서 방송사 자체의 재정구조 개선이 없이는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란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원우 기자

토지·성보대장 신도현황등 미비

조계종, 주요사찰 종무지도감사 결과

조계종은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본사 및 주요사찰 96개를 대상으로 재정실태파악 및 정기 종무지도 감사를 실시했다.

종무감사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사찰들의 재산·토지·성보대장, 주지인수인계서, 산하단체·신도현황 등이 제대로 안돼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찰운영 업무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동산 관리, 세금관련 업무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은 10월25일 재정실태파악위원회를 소집, 재정실태파악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는다.

제주 일부 광주BBS 청취가능

광주불교방송이 최근 제주 일부지역에서도 청취가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내 제주시와 산북일부지역에서 고성능 오디오 수신기로 광주불교방송의 청취가 가능하다는 것. 광주 불교방송은 무등산 중계소를 통해 출력 3kw로 광주 일원을 가청권으로 전파를 띄우고 있으나 장애물이 없는 경우엔 충북 일부까지도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진각종 종조 열반절
지난 16일 추념불사

진각종(통리원장 락혜)은 지난 16일 오후2시 총인원 종조전에서 제32주기 종조 열반절 추념불사를 봉행했다.

각해 총인, 손제석 회당학원 이사장, 도흔 교육원장등 각 심인당 스승을 비롯 신교도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락혜 통리원장은 추념사를 통해 "종조의 뜻을 받들어 안으로는 교법수호와 심인진리의 홍포에 힘쓰고 밖으로는 종단의 위상강화에 전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탑주심인당 금강회(회장 심성재)는 총인원에서 제2회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에는 해인원경, 은혜경등의 경전액자를 비롯 도자기 등이 전시판매됐다. 수익금 전액은 소년소녀가장을 비롯 불우이웃 돕기에 쓰여질 예정이다.

추계강공회 개최
총지종, 25일부터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안효강)은 오는 25일~28일까지 통리원에서 제46회 추계강공회를 개최한다.

전국 각사원의 스승들이 참석하는 이번 강공회는 불신론 및 성불론에 대한 특강과 '미래의 교화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총지종은 지난 24일 오후 3시 총지사 본당에서 '총지중보' 참간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밀양 삼양사 종합불교회관 기공

천태종 밀양 삼양사(주지 월장스님)는 지난 16일 김도용 종정을 비롯 종단간부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불교회관 기공식을 성황리에 거행했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종합불교회관은 총7백여평에 5층규모로 대웅전 어린이집 종무소등을 갖추고 오는 97년 1차공사를 회향할 예정이다.

괘불점안식 봉행

법화종, 월드컵유치기원도

대한법화종 경남 진주종무원(원장 유원봉)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사천시 선진공원에서 괘불점안식 및 국태민안과 2002년 월드컵유치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구암스님을 비롯 종단간부스님과 지역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총무원장 대호스님은 "괘불점안식을 계기로 각 가정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하고 2002년 월드컵 경기가 반드시 개최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구 신행단체 간담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결성을 위한 대구지역 신행단체 간담회가 지난 13일 시내 모식당에서 대구직불협, 신도회, 자비회 등 10개 신행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방송가 소식

15부 다큐 '티벳불교'
강릉MBC 20일 방영

강릉MBC는 티벳불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티벳불교(박태삼PD)'를 오는 20일부터 오후 8시~9시까지 60분용 15부작으로 방영한다. 일본 추전TV 중국 감숙TV가 합작하여 제작한 '티벳불교'는 제1부 '설원의 티벳불교'등 30여편으로 티벳불교의 시원과 독자적인 발전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릉MBC는 지역방송이 끝나는 11월초부터 3편으로 재편집, 매주 화요일 방송되는 'MBC 다큐멘터리'로 전국에 방영할 예정이다.

또한 불교텔레비전과 판권계약, 비디오로도 판매할 계획이다.

안전운전 기원법회
BBS 교통통신원 불자회

불교방송 교통통신원불자회(회장 양재국)는 지난 15일 한강 중지도에서 안전운전 기원제및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차를 구입했을때 행하는 고사를 불교식으로 바꿔 안전운전 기원제를 봉행했으며 2부에서는 친선체육대회로 회원간의 법우애를 다졌다.

90년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교통제보나 프로그램보조를 목적으로 창립된 불교방송 교통통신원불자회는 91년부터 신행단체로서 역할을 다하며 현재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 4백여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불교TV 영상특강
비디오제작 시판

불교TV는 매주 목요일 12:30~13:30에 방송되는 'btn 특강'을 13편의 비디오로 제작, 지난 21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사회저명인사를 초대하여 현사회 문제점과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고은시인, 김지하시인, 이근후박사, 소설가 조정래씨, 김용운 조영자교수 등이 출연했다.

합창단 지휘자 대상
31일 불교TV 설명회

불교TV는 오는 31일 오후3시 금호빌딩 15층에서 불교계 합창단 지휘자를 대상으로 불교TV설명회를 개최한다.

목탁소리

창작의도와 '보는 눈'

임 연 태
〈취재2부 차장〉

그림에 등장된 인물이 비구니스님이냐 아니냐.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마포 서남미술관에서 열린 이동연씨의 개인전에 발표된 30여점의 그림을 놓고 제기된 의문이다. 이씨는 연꽃 미륵불상등과 머리를 깎은 채 거의 알몸인 여성을 함께 화폭에 담은 그림들을 내 놓았다. 한 스포츠신문이 비구니 운운하며 관심을 끄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교계에서도 이 전시회에 관심을 갖게 됐다. 조계종 호법부에서도 직접 전시장을 찾아가 그림의 창작 배경 등을 작가로부터 들었다는 후문이다. 종단차원의 공식적 대응은 없었다.

이미 전시는 끝났다. 그리고 작가는 교계 신문사들에 설명서를 보내 '비구니'란 표현은 자신의 창작의도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은 인간의 내면세계에 잠재된 번뇌의 실체와 생명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쩔 수 없이 비구니라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 관람자들의 평이다. 다시말해 작가의 창작의도와 관람자의 이해사이의 간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작가는 인물화를 전공해 오며 이전에도 연꽃등을 배경으로한 반나신의 여인을 화폭에 담아 왔었다. 그림속 여인의 머리를 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물화에서 모발을 깎은 형태로 인물을 등장시키는 예는 서양에서도 종종 있다. 일본의 풍속도 '부세회(浮世繪)'의 영향을 받은 오스트리아출신 작가 크림트가 그 한 예다. 18세기~19세기에 활약했던 크림트의 삭발기법은 현대작가에까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회화에서의 한 표현양식인 삭발의 의미는 불교적 '단절' '초월'의 의미보다는 내면세계의 극단적 표현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

크림트의 영향을 받았건 자신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형상화의 산물이건 이씨의 작품들이 한국인, 특히 불자들의 정서상 공감을 얻어내기는 무리가 있다. 그림이 발표됐을 때의 불교계 반응을 미리 생각했는지도 의문이다. 만약 생각지 않았다면 예술의 창의성과 대중적 신앙심의 관계를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교계에도 제반 창작예술활동 속의 불교오도를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바람이다.

공고

범음대학에서 95학년도 후반기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당대 어산종장이신 박송암 큰스님의 직강으로 안차비를 강의하오니 불교의식의 정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5년 10월 11일부터 10월 27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반명함판 사진 3매(입학원서는 사무국에서 배부함)
- 모집인원 : 30명 정원제
- 강의기간 : 2학기 1년
-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 강 사 : 어산종장이신 주요 무형문화재 제50호 박송암 스님 직강
- 특 전 :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 수료증 수여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 자격 수여
- 강의과목 :
  안차비 1. 生前預修齋 2. 中禮 3. 屍多林 4. 茶毘文
  5. 神衆大禮 6. 觀音禮文 7. 四明日對靈 8. 點眼儀式
  9. 奠施食 10. 救病施食 11. 各種疏 12. 巡堂節次
  13. 食巡節次 14. 回向 및 燒臺節次
- 개강일시 : 1995년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
- 문의전화 : (02) 392-3007 ~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 1번지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주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장 김 혜 경
부설 옥천 범음대학 학장 박 송 암

부처님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불교 21인 고승대덕 큰스님 초청대법회

당신은 불교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불자여! 불교를 바로 배웁시다.
부처님의 진리는 21세기 한국불교를 책임집니다.
불교는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알아야 人生을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 21세기 한국불교를 책임 질 전국 큰스님들이 부산 천마산 천왕사 큰법당 사자좌에 오르십니다. 오탁에 찌든 이 시대에 친견하기 어려운 이 福田에 오셔서 감로의 법문을 경청하시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 살아 숨쉬는 화엄의 妙, 법화의 妙, 반야의 妙, 열반의 妙를 얻어서 참나를 찾은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人生의 妙를 깨달아 광도중생하시길 빕니다.

한국불교 고승대덕 21人 프로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일 오후 2시

법 사 스 님		법 사 스 님	
정락 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보각 스님	서울 중앙승가대교수
월강 큰스님	부산불교 연합회 수석부회장	현각 스님	동국대학교 불대교수
암도 큰스님	조계종 전 포교원장	혜인 스님	제주 약천사 주지
성운 스님	조계종 전 사회부장	성응 스님	상주 남장사 주지
반월 스님	조계종 전 포교부장	지원 스님	서울 은평포교원 원장
지성 큰스님	조계종 전 중회의원	지허 스님	순천 선암사 주지
진철 큰스님	통도사 자비원 원장	보현 스님	본 대학 학장
신원 스님	화계사 불대학장	법산 스님	동국대학교 불대교수
신거제(정우)스님	바른생활교육원 원장	증호 스님	동국대학교 불대강사
월탄 큰스님	전 법주사 주지	고산 큰스님	하동쌍계사 주지
효원 스님	전 범어사 강주		부산해원정사회주

졸업식 : 11월 26일 오전 10시, 수계식 : 11월 26일 오후 2시

-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2동 94-216
- 교통편 : 35, 190번 산복도로 남부민 2동 동사무소 하차/6, 61, 16, 17, 161번 남부민 2동 새마을금고 앞 하차
- 문의처 : 부산보현불교대학 (051) 253-0681, 244-3481

주최 : 부산보현불교대학
후원 : 천왕사 신도회, BBS부산불교방송, 부산일보사, 불교신문사, 대한불교신문사, 천왕사

부산보현불교대학장 서 보 현 합장

그룹으로 周易 강의합니다

易은 훌륭한 철학서인 동시에 占書이기도 한데 소리에 응하는 메아리처럼 미래에 야기될 사태를 정확히 예고하는 無上의 인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정:3개월
전화:(02) 723-5665
※지방도 출장지도합니다.

배우자를 찾습니다

재혼 이정한(男) 41세
직업 개인사업
호출 012-861-1688
31세~33세 사이 성실한 불자여성을 찾습니다.

천하 명당자리에 위치한 암자를 꾸려나갈 참신한 스님이나 보살님을 찾습니다

위치 : 김해시 시내(산)
전화 : (051) 553-0383

•조용한 산사에서 함께 할 가족을 기다립니다.
• 35인승 운전 기사님
• 공양주·법당 보살님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원적정사 전화 (0342)704-8272(주) 705-3470~1(야)

현대불교 팩스 광고신청문의 구독신청문의
7737377-0069693

"스님들 노후걱정 마세요"

각 종단 기로원 건립…건강·연금등 복지제도화

한평생을 수행과 포교에만 전념해온 스님들이 노후에도 편안하게 수행의 깊이를 더해 갈 수 있을까. 승려노후복지문제는 기회만 있을 때마다 거론되어 왔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것이 교계의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진각종을 비롯 몇몇 종단에서 노후에도 수행에만 정진할 수 있는 스님들의 노후복지대책이 종단차원에서 강구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86년 교화일선에서 퇴직한 원로스승들을 위한 기로원(耆老院)을 설립한 진각종(통리원장 락혜)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 3백회 종의회에서 스승복지회의 발족을 결의했다. 진각종 스승복지회는 기로원을 중심으로 원로스승들의 원만한 수행, 봉양, 간병을 비롯 입적(入寂)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스승 노후복지의 문제는 물론 현직 스승의 복지정책을 제도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진각종측은 "원로스승들을 위한 물질적인 봉양뿐만 아니라 종단의 원로로서 예우하는 차원의 정책을 펼 예정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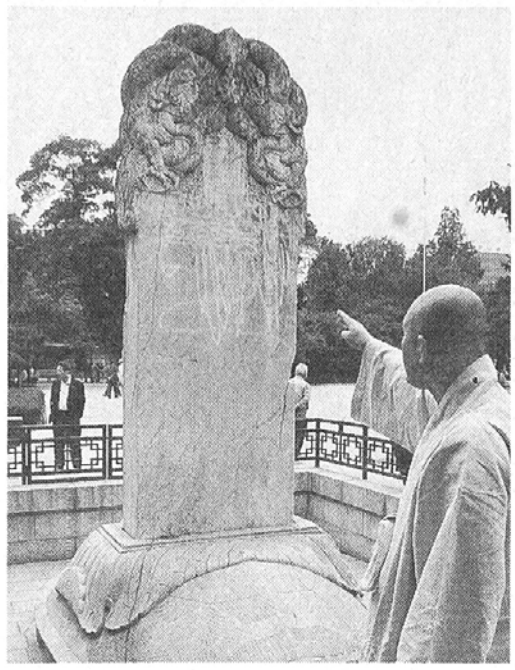
대부분의 스님들이 노후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의 설립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진각종 스승복지회의 본격적인 발족은 다른 종단의 승려노후복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이미 법령에 '승려노후복지원 설치령'을 마련, 시설 건립, 의료공제회 등을 비롯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태고종은 강원도 평창과 경남 울산(정토마을)에 부지를 마련하고 실버타운 건립을 위해 복지법인 마련에 나서고 있다. 법인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홍성복실장(법인행정원)은 "승려 노후복지시설은 재정적 문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불교복지 정착을 위해서는 종단차원의 지속적인 투자와 준비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태종도 종단차원에서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스님들을 위한 요양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지종도 최근 강원도 인제지역에 실버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륜종은 충남 논산에 원로비구니스님들을 위한 아파트형 복지시설 건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불교복지 한 관계자는 "노후거처와 질병치료 등에 걸림없이 수행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복지 실현이야말로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중근 기자〉



"비각설치 절실" 보물 제3호인 원각사지비의 붕괴위험을 지적해 온 청청스님(원각사지 성보관리인)은 지난 17일 서울 탑골공원 현장에서 "거북모양의 귀부에 갈수록 균열이 커지고 있다"며 비를 피할 수 있는 비각을 조속히 설치해 주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

'5·18' '10·27' 책임자 참회 촉구

전불련등 5개단체 25일 조계사서 법회

전불련(상임의장 지선스님)을 비롯한 교계 5개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조계사에서 '5·18학살 및 10·27법난 책임자 참회 촉구법회'를 개최한다.

전불련, 재가연합, 대불련, 대불청, 실천승가회는 지난 18일 대불련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10·27법난 15주년을 맞아 시국법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회에서는 10·27법난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강연 및 연설, 관련일지 발표, 피해자 증언과 5·18관련 특별성명서 발표 및 결의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또한 전불련, 재가연합, 불민협은 19일 총무원과 3교구본사 신흥사, 백담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현재 백담사에 보존되고 있는 '전두환 물품 전시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0·27법난등 '법난 역사관'을 조성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앞서 실천승가회(공동의장 청화·지선스님)도 지난 17일 '10·27 15주기 및 5·18 특별법제정을 위한 시국법회'를 오는 27일 열것을 총무원에 제의했다.

16차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

불국사서 30일~내달 1일 개최

제 16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오는 30일부터 11월1일까지 2박3일간 경주 불국사에서 개최된다.

'종교의 갈등과 평화노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최병헌 서울대교수, 일본에서 호조젠조 대정대교수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며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등 한국과 일본의 불교지도자 3백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는 △환영만찬(10월30일 오후7시 현대호텔) △제16차대회 개회식(10월31일 오전10시, 불국사) △학술대회(10월31일 오후2시, 현대호텔) △성지순례-통도사 삼광사 범어사(11월1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원로시인 이원섭씨

문화훈장 보관 수상

원로시인 이원섭씨가 문체부로부터 문화훈장 보관을 받았다.

문체부는 지난 20일 문화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문화예술상·오늘의젊은예술가상등 41명의 수훈자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이날 훈장을 수여받은 불자 예술인은 이원섭씨 외에도 한국무용가 조흥동씨, 시조시인 정완영씨, 소설가 홍성유씨, 영화배우 장동휘씨등.

강원지역 군불자

월정사 수계법회

강원지역 군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 수계법회를 갖는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현해스님)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월정사 적광전에서 이 지역 군불자와 가족 1천여명을 초청 '제1회 강원지역 군인불자 보살계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강화 마니산 改名 일단 유보

중앙지명위 재검토…"地名 자체가 민족유산"

일부 개신교도들에 의해 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화 마니산 지명개명이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일단 유보됐다.

중앙지명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립지리원에서 회의를갖고 "강화 마니산지명은 지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명으로 수백년간 사용되온 민족유산이다"며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지명위원회의 강화 마니산 개명 유보결정에 대해 선덕학회 황우연회장은 "당연히 불가판정을 내려야 했는데 결정을 유보시킨것은 아쉬운 일이다"며 "마니산(摩尼山)은 불교에서 나온 지명으로 최고의 경지인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선조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황회장은 또한 "일부 기독교인들이 10여년전부터 근거도 없이 집요하게 지명을 바꾸려 한다"며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리산'은 잘못된 표기다"고 말했다.

강화 마니산은 '마리산 이름 되찾기추진회'가 일제때 마니산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지명개명을 요청, 강화군과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가 개명키로 결정했으나 이번에 최종결정기구인 중앙지명위원회에 의해 개명이 유보됐다.

지방승가대 설립·운영안 논의

승가교육개혁추진위

조계종 승가교육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도법스님)는 지난 17일 진흥원 회의실에서 △지방승가대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 검토 △기본교육기관 교육의 방향 △동남아 승가대학 교육내용 소개 등을 주제로 제1회 회의를 가졌다.

'지방승가대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초안을 구성 추진위원들의 검토를 받아 다음 회의때 상정키로 했다. 또한 기본교육기관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는 △청규등 율과목 강화 △커리큘럼상의 문제 보완 △교수방법 개선 △현대학문 수용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교과목 전반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조사를 마쳐 보완 개편키로 했다.

도법 종석 법산 지운 향적 영배 현응 지형 일연 법진스님 등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추진위 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현응 향적 법진스님 교육원·기획실 실무자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나눔의 집' 공사 차질

오는 12월 완공을 예정으로 지난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나눔의 집이 3억6천여만원의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경승후원조직 활성화

경승단(총재 월주스님)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불교회관 1층에서 경승후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경승지단장 회의를 개최한다.

동명불원 화엄법회

화엄산림법회 및 보살대계 수계식이 지난 17, 18일 양일간 부산 동명불원(주지 장산)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번 법회에는 무진장(전 조계종 포교원장), 홍교(신흥사 주지), 도업(동국대 교수), 진제(해운정사 조실), 무비(전 범어사 강주), 고산(쌍계사 조실)스님등이 초청법사로 나선다.

길상사서 인권학교 개강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한상범)가 오는 28일부터 11월3일까지 매일 오후 6시 인권법당 길상사에서 인권학교 강의를 연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화하고 폭넓은 인권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에는 진관, 각명스님과 한상범교수 등이 불교사상과 인권, 불교와 경전, 한국의 인권문제등을 강의한다.

28일 장애인포교회 출범

장애인불자와 재가불자를 중심으로 한 대한불교장애인포교회가 오는 28일 보라매 청소년회관 보랏터에서 창립법회를 갖는다.

대한불교장애인포교회는 창립과 더불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불자행원 '등불회' 창립

서울은행 부산지역 지점 불자행원들의 모임인 '등불회(지도법사 혜덕)'가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창립법회를 가졌다.

수련회·천도재 열려

생명공양실천본부 수련회 및 천도재가 지난 14, 15일 양일간 충남 수덕사서 열렸다.

이번 수련회는 생명공양본부 회원과 자원봉사자를 비롯 지난 6월 신장을 기증한 원공스님과 수혜자 임양수씨, 10월초 이상준군을 살린 신장기증자 강원필씨등 3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생명공양실천본부에 사후시신을 기증한 이길상, 김치언, 홍종인, 최순미씨등 4명 영가의 극락왕생 기원을 위한 천도재도 봉행됐다.

경월스님 16일 입적

조계종 원로 경월스님이 지난 16일 오후9시 부산 소림사에서 세수 80, 법납 60세로 입적했다.

복지시설·단체 절반이 서울에

조계종, 불교복지편람 발간…운영자금 태부족

불교계 사회복지시설·단체의 45%가 서울지역에 편중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28% 사회복지단체의 41%가 운영자금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수립을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이 불교복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9일 발간한 '불교복지편람'에 의해 밝혀졌다.

불교복지편람에 따르면 청소년 복지시설은 15개 시설모두가 서울에 편중돼 있고 이들중 14곳이 단순한 공부방에 불과해 청소년 포교를 위한 종합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복지의 경우 지역복지관 위탁운영등을 통해 아직 미흡하나마 전국적인 분포를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하루평균 4백50여명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불교복지편람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6월23일부터 7월30일까지 시설, 운영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발간했다.

이 편람에는 아동·노인·장애인·청소년·부랑인·지역복지등 총1백18개 시설과 단체에 대한 재정, 이용현황과 사업내용, 종사자·자원봉사자현황을 비롯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불교계에 바라는 사항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편람은 부록으로 불교복지시설 주소록 등을 수록하고 있다.

사단법인 발기·국내외 승단교육지원등

우리는선우 창립 4년 행사 다채

재가신행단체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는 창립 4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발기인 총회, 학생회창립, 국내외 승단교육지원을 위한 바자회개최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28일 서울 구룡사 문화관에서 열리는 기념법회및 사단법인 총회에서는 법인등록을 위한 정관확정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며 법인등록은 11월 중으로 문체부에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우리는선우는 대학생을 주축으로 하는 학생회를 창립한다. 매주 일요일 선우법당에서 법회와 교리강좌를 진행하게될 우리는선우 학생회에는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31일 통도사 개산대재

연고제·학술세미나·경노잔치 열어

불보종찰 통도사(주지 지은)는 오는 31일 개산 1350년을 맞아 연고제(緣故祭)를 비롯 학술세미나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이번 개산대재는 31일 통도사 개산조 자장율사가사 이운을 시작으로 양산군내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사생대회, 통도사 산하 유치원 원아들의 재롱잔치, 찬불가 경연대회가 이어진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지역 노인들을 위한 경노잔치가 열린다.

이어 11월 1일에는 자장율사의 법통을 잇는 연고제에 이어 '불교와 환경'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

마지막호도기회

60년만에 찾아온 을해(乙亥), 복 돼지해 윤달

최고의 윤달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25일부터 윤(閏)8월

오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음력으로 윤(閏) 8월이다.
장의용품 업체에는 수의(壽衣)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반면 예식장 및 이삿짐업계는 예약이 끊겨 울상이다.
올해는 60년만에 찾아 온 을해(乙亥)년 "복 돼지"해.
하늘과 땅, 남녀 등 모든 음양이 "합일(合一)을 이뤄 올해 낳는
신생아들은 최고의 사주팔자를 지니며, 윤달에 결혼이나
이사를 하면 해롭고, 수의를 마련하면 재앙이 들지 않는다는 속설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세시풍습중 윤달이 든 해에는 집안의 연로하신 어른께
효심을 전하기 위해 수의를 지어 올리는 미풍양속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무병장수하신다하여
수의를 미리 준비하여 갑작스런 장례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세상은 변했어도 노부모님에 작은 소망은
누구나 한결같이 간절합니다. 〈서울신문 95.9.18 보도내용〉

장례 토탈 서비스 안내
갑자기 상을 당해 당황하는 상주님들을 위하여
임종에서 장지까지 전과정을 신속하게
무료 서비스합니다.

** 서비스 안내 **
■ 국내최초 장례무료 상담전화 개설운영 24시간
■ 장례행사 대행(전국체인연결) ■ 묘지상담알선
■ 파출부, 도시락(음식)알선
■ 현재 평생회원제도 운영中(91년시행)

※(주)원품은 손삼베 전문업체 입니다.



※수의판매 이익금 일부로 무의탁노인, 청소미화원, 뺑소니차 사망시 수의를 무료로 드립니다.

수의 가격 조견표

품 명	시중가	행사가	비 고
품4호(마)	640,000	350,000	일반품
품3호(천연마)	1,360,000	680,000	천연마 100%
품2호(보성포)	1,960,000	980,000	대마 수제, 순창 강포
품1호(특손삼베)	4,500,000	2,200,000	특산단지 지정품 특대마 100%

※댁으로방문하여 종류별 비교하여 드립니다.



캐디락 리무진 장의차

전 회원에게 리무진 이용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고급제품은 겹 삼베로 제작됩니다.
※ 남자 19가지, 여자 18가지 갖은 수의입니다.
※ 본(주)원품 수의는 특허청 의장등록 제159132호로 등록되었으며 농어촌 특산단지에서 생산된 고급제품으로 품질이 보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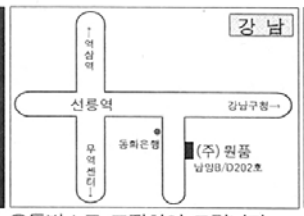
※이조목제기·병풍을 전시(윤달기간 할인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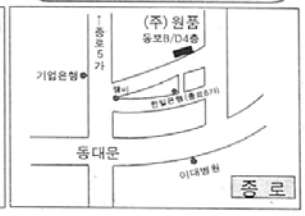


고급 오동박스

※전 제품을 장기보전용 오동박스로 포장하여 드립니다.

찾아오시는길





신용카드 구입시 18개월 장기분할
※일반할부가능

전국취급점모집
공휴일 및 주·야 24시간 진화상담받습니다.

본사영업부 (02)566-7676 종로:3673-5226

■광역시
부 산
대 구
인 천:462-3562
광 주:361-1349
대 전:627-9575

■경기도
수 원:216-6336
고 양:913-2181
원 담:915-4097
구 리:557-2166
성 남:721-5782
부 천:323-6484
분당·이천:(0342)756-8841
일산·파주:(0344)977-0031
김포·김화:(0341) 82-2818
안 양: 61-0336
안 산: 80-6690
의정부:876-8872
평 택:655-0966

■강원도
춘 천
강 릉
속 초
원 주

■충청도
천 안:582-3612
온 양:545-1533
청 주
홍 성
대 천
서 산

■전라도
전 주: 85-5130
군 산:452-0386
이 리:832-1944
정읍·김제:(0652)231-7694
목 포
순 천
여 수

■경상도
진 주:43-0880
경 주
구 미
포 항
마 산
거 제
진 해
충 무

■제주도
제 주:58-3023

(주)원 품
TEL 566-7676
제1공장:광주(주)반 석
제2공장:(특산단지)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멀티미디어의 삼성전자

병원에 가지 않고도
버튼하나로 진료받을 수 있는 세상

지금보다 100배는 더 멋진 세상이 열린다.

멀티미디어가 가져다 주는 생활혁명 ——
원격진료의 새로운 생활이 당신앞에 펼쳐집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ATM 교환기를 통해, 순간적인 움직임이나
미세한 색상의 차이까지 완벽하게 전달하는 원격진료시스템이
실현됩니다.

이제 안방에서 버튼하나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 "전자왕진"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토대로 한
멀티미디어 세계 ——
이미 기술의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A/V 등 전분야에 걸친 기술혁신을 통해
ATM 교환기, 멀티미디어 반도체, 멀티미디어 PC, 광통신,
256메가 D램, PDA(개인 휴대용 단말기), CD-DV(디지탈 동화상 CD),
화상회의시스템, VOD(Video On Demand) 등을 실현,
삼성전자가 꿈의 멀티미디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의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1등제품만을 만들겠습니다

SAMSUNG 삼성전자